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태 현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가족 · 학교 · 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청소년의 인터넷의존간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선 우

가족 · 학교 · 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청소년의 인터넷의존간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김태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선 우

인 준 서

김선우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의존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로 가족환경요인(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을 선정하고, 우울이 매개변인으로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가설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수도권 소재 중학교 4개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6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단의 표집은 남·녀 성별특성이 골고루 대표될 수 있도록 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AMOS 7.0 program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 사용 및 의존 실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으며,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인터넷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하고, 하루평균 1~3시간 미만을 사용하며, 인터넷으로 온라인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인터넷의존 수준을 Young(1998)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 결과, 일반사용자군(20-40점)이 65.7%, 잠재적 위험자군(50-79점)이 30.4%, 고위험자군(80-100)이 3.8%의 비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이론모형과 경합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집단 동일성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외생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외생변수와 우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 우울이 인터넷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생변인과 인터넷의존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인터넷의존간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인터넷의존 경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교사지지와 인터넷사용태도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생변수가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변수는 가족건강성,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었으며, 총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친구지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같은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의존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었고, 우울이 중요한 심리적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인터넷의존 예방에 시사하는 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언급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문제제기 | 1 |
| 2. 연구의 목적 | 5 |
| II. 이론적 배경 | 6 |
| 1. 인터넷의존 | 6 |
| 2. 청소년의 우울 및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 15 |
| 3. 우울의 매개효과 | 35 |
| III. 연구모형 및 가설 | 38 |
| 1. 연구모형 | 38 |
| 2. 연구가설 | 42 |
| 3. 용어의 정의 | 43 |
| IV. 연구방법 | 46 |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 46 |
| 2. 측정도구 | 52 |
| 3. 자료분석 | 62 |

| | |
|--------------------------|-----|
| V. 연구결과 | 63 |
| 1. 변인들에 관한 기초분석 결과 | 63 |
| 2. 측정모형의 검증 | 72 |
| 3. 연구모형의 검증 | 78 |
| 4. 연구모형의 총효과 분해 | 87 |
| VI. 논의 | 94 |
| 1.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 94 |
| 2.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 104 |
| VI. 결론 | 107 |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 |
|--------------------------------------|----|
|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9 |
|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61 |
| <표 3> 인터넷사용 실태 | 66 |
| <표 4> 인터넷의존 실태 | 68 |
| <표 5> 잠재변인의 기술통계 | 70 |
| <표 6>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 72 |
| <표 7> 측정모형 분석 | 75 |
| <표 8> 잠재변인들간의 공분산 | 76 |
| <표 9>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 78 |
| <표 10> 이론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 79 |
| <표 11> 이론모형과 경합모형간 적합도 지수들의 비교 | 80 |
| <표 12> 다집단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 82 |
| <표 13>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 84 |
| <표 14> 연구모형의 총효과 분해 | 88 |
| <표 15>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 93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이론모형 | 39 |
| <그림 2> 경합모형 1 | 41 |
| <그림 3> 경합모형 2 | 42 |
| <그림 4>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 74 |
| <그림 5>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 85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우리생활에서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화상매체, 음성매체, 활자매체가 주된 정보 전달 매체였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매체가 전자매체 즉, 컴퓨터 네트워크로 통합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사용률은 2008년 현재 77.1%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자수는 3,536만명에 달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 사용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연령별로는 10대(99.9%), 20대(99.7%), 30대(98.6%) 등으로 젊은층의 대부분 98%이상이 인터넷사용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3~9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82.2%, 40대 82.2%, 50대 48.9%, 60세 이상도 19.0%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이제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고, 조직운영과 경제활동, 다양한 즐거움의 제공과 건강, 그리고 학습까지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이 가져오고 있는 새로운 사회관계들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Kraut와 Patterson(1998)은 ‘Internet Paradox’ 라고 표현하면서, 인터넷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사회활동을 대치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켜 심리적 안녕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19세 시기에 인터넷의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고교 청소년의 50%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80%가량이 게임·오락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국인터넷진흥원, 2008)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족과 학교환경 속에서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활동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은 생활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친구와의 대화도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e-메일이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고, 여가시간에는 서로의 컴퓨터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구를 만나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컴퓨터 및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PC방의 번창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상세계를 접하고 이에 몰입하기에 매우 용이한 상황과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황상민, 1999).

이와 같은 인터넷사용에 관한 사회환경적인 면과 청소년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의 하나로 인터넷을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의존은 인터넷을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사용하여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학업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겪게 되지만 인터넷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의존하게 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 빠진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이 하고 싶어서 인터넷 게임용 사이버머니카드 등의 금품을 훔치기도 하고(매일신문, 2009. 2. 7), 게임아이템을 빼앗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거나 해킹을 하기도 하며, 욕설을 퍼붓는 문제 행동을 보인다(류승호, 2001).

선행연구들에서는 인터넷의존과 같은 행동은 여러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요인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권재환, 2005; 유혜경, 1986; 이계원 2001; Yang & Tung, 2007; Weitzman, 2000). 청소년 인터넷의존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인터넷의존의 원인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와 청소년 인터넷의존의 하위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인터넷의존 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인터넷의존 예방 및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의존 관련 연구들은 인터넷의존의 원인과 관련된 변인들을 찾아보거나(방희정, 조아미, 2003; 신수정, 장윤옥, 2007; 전영자, 서문영, 2006; Yang & Tung, 2007, Young & Rogers, 1998) 인터넷의존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즉, 심리적 변인과 가정환경적 변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권정혜, 2005; 김연화, 정영숙, 2005;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최나야, 한유진, 2006; Cao & Su, 2006; Weitzman, 2000)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또한 일부연구에서는 학교환경과 인터넷의존과의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권윤희, 2005; 황수정, 2000).

최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태체계 요인들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류진아, 2003; 이지향, 2005; 부정민, 2007)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생태체계 요인들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경로를 통해 인터넷의존의 원인과 변인들간의 영향이 드러날 수 있고, 인터넷의존 예방 및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회환경 특성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들도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PC방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등의 단일문항으로 청소년의 사회환경을 설명하거나(류진아, 2003; 부정민, 2007), 역기능적 인터넷사용을 얼마나 하는가, 사용시간이 어느정도인가와 같이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환경요인을 단일문항만으로 조사하여 분석(이숙진, 2007)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의존을 개인적인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인터넷의존과 관련이 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이 인터넷의존에 이르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을 인터넷의존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환경요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요인에 따라 인터넷의존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Gunn, 1998; Weitzman, 2000; Yen 외, 2008)에 근거하여, 심리적 요인인 우울을 포함하여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은 낮은 자존감, 동기저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빠져들게 하며, 인터넷의존 유발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덕심, 2003).

김진희, 김경신(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이 되는데 있어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과의 관계에서도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변인들간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본 것과 비교하여, 우울을 매개로 한 변인들의 간접효과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론모형의 대안적 설명을 해주기 위한 두가지 경합모형을 설계하여 타당한 연구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택된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에 이르는 경로와 과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터넷의존을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인터넷의존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의존과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설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대한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의 영향력이 직접적인지, 아니면 우울이라는 매개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청소년 인터넷의존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인터넷의존 과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인터넷사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및 의존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경로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넷의존

컴퓨터와 인터넷활용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인터넷의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의존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진단기준 또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인터넷의존의 개념 및 진단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의존의 특성을 파악해보고, 이러한 인터넷의존이 청소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인터넷의존의 개념

중독(addiction)이라는 용어는 알콜이나 약물 등 인간의 몸안으로 흡수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남용, 금단, 내성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의학적 용어이다. 그러나 중독과 관련된 생리적 의존성은 약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충동조절장애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Knecht(1995)는 지나친 TV 시청, 병적 도박, 섭식 장애 등과 같이 전혀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중독행동의 기저에도 충동 통제적 결핍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독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니코틴이나 알콜, 기타 마약류에 대한 중독 등과 같이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물질에 의존하는 물질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일, 운동, 쇼핑 등과 같이 특정한 행위나 활동에 의존하는 과정중독이다. 과정중독 현상 중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게임 등에 대한 의존과 이들을 포함한

인터넷 활동 자체에 대한 의존이다(양돈규, 2000; 이지향, 2005; Griffiths & Hunt, 1998).

이러한 중독의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하여 인터넷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Goldbug(1996)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DSM-IV¹⁾에서 제시한 물질남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Goldbug는 인터넷중독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심각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패턴의 인터넷 사용’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이 지각장애, 주의력 장애, 사고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정신행동성 행동장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 사용 역시 그러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넷중독 기준의 소개는 Young(1996b)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부터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Young(1998)은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약물, 알콜 또는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라고 하였다. 즉, 인터넷 사용에 탐닉하여 이에 대해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 등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중독 상태를 말한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자들은 다른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적,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 생활에 있어서 명백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riffiths(1998)는 마약이나 알콜과 같은 약물만이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성행위, 운동, 컴퓨터게임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독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중독은 약물 등의 물질 중독과는 다른, 행동적 중독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에 대하여, ‘과다하고 지속적인 인터넷 사용으

1)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편람

로 조절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등 여러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이숙진, 2007),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은 '인터넷을 과다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라고 개념정의를 하였다. 또한 김동욱(2001)은 '인터넷중독은 단지 인터넷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의 과다하고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내성, 금단증후를 비롯한 현실생활에서의 부정적 결과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인터넷중독은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지 않았을 때 불안과 초조감 같은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내성으로 인해 인터넷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며, 반복적인 접속으로 인해 현실 생활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터넷중독'이라는 용어는 병명으로 규정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소년들에게 사용하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기보다는 매개하는 도구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인터넷의존'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 인터넷의존은 '인터넷에 대한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고 일상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들에서 인용한 글의 경우에는 '중독'이라는 용어를 원문대로 사용함

2) 인터넷의존 진단 및 특성

인터넷의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자들은 인터넷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Young, 1998).

Goldberg(1996)가 제시한 인터넷중독 진단 준거에는 첫째,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소모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내성(tolerance), 둘째, 사용해오던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나타나는 정신운동성 초조(psychomotor agitation), 불안(anxiety),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강박적 사고인 금단(withdrawal), 셋째, 인터넷 사용의 빈도 및 시간이 더 길어지는 갈망(cravings), 넷째,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기능상의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 있다(권재환, 2005에서 재인용). 한편 Griffiths(1998)는 이 4가지 기준에 돌출행동(salience)과 재발(relapse)을 추가하였다.

또한 Young(1996a)은 DSM-IV에서 제안하는 약물중독 판단기준에 기반하여 인터넷중독 준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내성(tolerance,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둘째, 금단(withdrawal,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우울함, 불안감, 변덕스러움 등); 셋째,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오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넷째, 갈망(cravings, 사용을 그만하려고 하는 것을 실패함); 다섯째, 컴퓨터 사용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함, 다른 삶보다 컴퓨터 사용이 중심이 됨; 여섯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일들을 포기함; 일곱째, 가족이나 직업에서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과용하는 것 등이 있다(O'Reilly, 1996). 위의 일곱 개의 항목 중에서 세 개 이상이 해당되면 병리적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Young(1998)은 판단기준들이 알콜/약물중독의 판단기준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과다사용도 성적행동, 의존

적 행동과 같은 심리학적 중독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인터넷의존을 진단하고자 하였는데 일관된 진단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자기통제력 결핍,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김교현, 2001; 이소영, 권정혜, 2001;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자가진단 척도(K척도)는 일상생활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7가지 요인을 인터넷중독 진단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문성원, 김성식(2004)은 가상세계에 대한 강박적 몰입, 내성/과몰입적 접속, 가상의 정체성 추구, 자기 통제력 상실, 학업적 실패/신체적 문제, 대인관계의 손상의 6가지 요인을 통해 인터넷중독을 진단하였다.

또한 인터넷 과다사용을 의존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enner(1997)는 563명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대상자들은 컴퓨터 사용에 내성을 보였으며, 컴퓨터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금단증상을 보이고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강한욕구 등을 보였다.

비슷한 연구결과로, Young(1996a)은 위에서 기술한 일곱 가지 인터넷중독 판단근거에 의하여 자신이 인터넷중독이라고 밝히는 500명의 참여자들을 조사하였다. 설문답변을 통해 추정해볼 때, 그들 중 396명이 인터넷중독자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들(396명) 중에서 약 85~98%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사용함으로써 직업이나 공부, 금융문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의존 여부를 진단하기도 한다. Anderson(1999)의 연구에서는 의존적 사용자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인터넷

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비의존적 사용자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인터넷을 사용한다. Anderson(1999)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의존적인 사용자들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학업이나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 그리고 수면습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사용자들의 경우 지난 한주동안 두 번이상 3시간 연속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하루 4시간 미만의 잠을 잔 적이 한 번 이상 있고, 학교에 없을 때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려 하였다.

또한 Young(1996a)은 인터넷중독자들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함을 밝혀냈다. 중독적 사용자들은 주당 40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며, 비중독적 사용자들은 주당 5시간만을 사용하였다. 어떤 중독적 사용자들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시간에 의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일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중독적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학업, 직업,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몇 번의 사용시간 줄이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반면에 비중독적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의 대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전자메일 사용에 이용하였다. 중독적 사용자들은 사용시간의 대부분을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에 허비하였다. 중독적 사용자들 중에서, Young(1997)은 세 가지의 대표적인 사용패턴을 발견하였다. 먼저, 채팅방 사용자(35%), e-mail 사용자(13%) 그리고 뉴스 검색자(7%)들은 "사회의 파악,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억압된 개인적 특성을 표출하는 것"을 추구하였다(Young, 1997). 두 번째, 온라인게임인 Multi-User Dungeons(28%) 사용자들은 "힘의 이해, 존경 캐릭터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추구하였다(Young, 1997).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9%)들은 지능적인 흥분을 원하고, 감흥을 추구한다(Young, 1996).

선행연구들에서는 인터넷의존에 대한 진단 후 인터넷의존자와 비의존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Greenfiled(1999)는 18,000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연구하였으며, 그들 중 5.7%가 인터넷의존자라고 분류하였다. 그는 의존자와 비의존자를 비교하여 다섯 분야에서 차이를 발견하였다. 첫째, 75%의 인터넷의존자들은 온라인에서 강렬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에 비의존자들은 41%만이 경험하였다. 두 번째, 80%의 인터넷의존자들이 온라인에서 충동조절에 대한 어려움(disinhibition)을 경험하였으며, 비의존자들은 43%만이 경험하였다. 세 번째, 83%의 인터넷의존자들이 온라인상 상황과 현실상황을 혼돈한 것에 반하여 비의존자들은 39%만이 경험하였다. 네 번째, 의존자들은 인터넷 사용시 거의 항상 시간가는 줄을 몰랐으나, 비의존자들은 아주 가끔씩 이런 증상을 경험하였다. 다섯 번째, 의존자들은 약 40%가 인터넷 사용시 자기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비의존자들은 8%만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다.

Orleans와 Walters(1996)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저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용자가 더 많은 성취를 하게 될수록, 사용자는 감정적으로 더욱 더 시스템에 빠져들고 의존적이게 된다’고 밝혔다. 다른 일반적 테마들로는 (a) 주체의 분산과 흥미의 상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더 집중하게 되고 (b)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보였다.

Young(1996a)은 정보수집과, 이미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비중독적 인터넷 사용자들의 가장 큰 인터넷 사용 이유라는 것을 알았다. 중독적 사용자들은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인터넷의존에 대한 진단은 집착, 내성, 금

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증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존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속감, 성취감, 흥분을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과 인터넷의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되어왔다. 10대 및 20대 초반의 학생 청소년층이 통신 이용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자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주요한 정보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어느 정도의 자신과의 연대, 대립, 긴장, 동의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일종의 가상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백승문, 2002).

한국인터넷진흥원(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8년 6월 현재 전체 인터넷이용자의 중독률은 8.8%(약 200만명)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자 중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률은 14.3%로 성인 6.3%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만 9세~만12세의 인터넷중독률이 12.4%, 중학교에 해당하는 만 13세~만15세의 인터넷중독률은 15.0%,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만 16세~만19세의 인터넷중독률이 15.9%로 나타났다.

인터넷의존 정도는 연구대상 및 인터넷의존 척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윤영미, 박효미(200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과다사용학생이 51.6%로 나타났고,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숙진(2007)의 연구에서는 중독집단이 25.9%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정선, 김세영(2006)의 연구에서는 15.5%가 인터넷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외 연구들에서 나타난 인터넷의존 정도 역시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

는데, 태국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정도를 조사한 Yang & Tung(2007)의 연구에서는 13.8%가 인터넷중독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Cao & Su(2006)의 중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4%로 나타났다. 또한 Niemz, Griffiths & Banyard (2005)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8.3%가 병리적 인터넷 사용자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인터넷의존 실태는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은 학업, 신체 건강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Brenner(1997)는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신적·정서적 발달과 정체성 확립에 장애를 경험하는 등 성인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위험의 소지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의존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85%가 우울증과 주의력결핍행동장애 등 공존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공존질환 중에서도 우울은 청소년의 학업수행문제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되며(Emslie & Mays, 1999), 또래관계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가져와 인터넷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Young, 1998)는 점에서 더욱 관심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Suler(2000)는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인터넷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게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불안정감을 조절하게 된다. 둘째,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가족과 부모로부터 분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물리적으로 가족과 떠나지 않으면서 모험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넷째, 인터넷은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좌절감을 해소하는데 도

움이 된다. 인터넷을 통해 빠른 반응과 공격적인 충동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의존은 청소년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2. 청소년의 우울 및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정인숙(1989)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정서적 문제와 주체성 문제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문제로는 친구나 기타 환경에 의해 우울 등의 심리적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주체성 문제는 생활에서의 위축현상과 함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의존적인 문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양상은 다양하며, 이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및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을 중심으로 한 가족환경요인,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중심으로 한 학교환경요인,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사용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족환경요인과 우울

① 가족건강성과 우울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향하는 변화가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며,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이 많은데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므로 그에 따르는 심리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분이 울적하다든지, 불행하다고 느낀다든지 하는 감정은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한다. 이 때 가족의 존재는 살아가면서 사춘기로 인한 우울함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Aseltine 외, 1994). 즉, 가족은 위기상황에서 가족원이 적응에 실패하게 하는 주 원인인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우울하고, 만성적으로 억압된 십대들은 사회교류에 덜 만족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충분하지 않은 지원을 받으며, 더 부정적인 가정환경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Olsson & von Knorring, 1999). 또한 긍정적인 부모-자식간의 교류는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자기 주변의 자원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heer & Unger, 1998). 이에 반해, 역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은 부모나 형제자매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가족 내 심리적 거리를 멀게 지각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최연실, 1993). 김진희(2001)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가족응집력이 초등학생의 우울,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의사소통 및 가족응집력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적

응성이나 응집성이 낮은 가족은 규칙, 역할, 지도력, 통제, 훈육에서 경직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성취하는데 지장이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 청소년의 우울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안인영(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인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가치관·목표공유, 긍정적 의사소통, 감사와 애정정서,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안정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가족환경이 아동기,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한다(Davis, Dumenci, & Windler, 1999; van Wel, 2000).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은 우울한 가족으로부터 더 많이 발생하고, 부모의 이혼, 부모들의 갈등, 부모의 정신적인 문제가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Forehand, Biggar, & Kotchick, 1998). Cheng(1989)은 중국에서는 서구문화에 비해 부모-자녀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가족원들의 감정적 상호의존성이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maladjustmen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가족체계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Zingaro, 1983). 부모-자녀간의 강한 유대관계는 우리나라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② 부모지지와 우울

가족과 우울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가정의 구조적 환경변인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접근이 많았지만(서숙영, 1993) 최근에는 우울의 관계를 가족의 심리적 변인(오정숙, 2006; 김민경, 2008)과 연결시키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Kaplan과 Camacho(1983)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의 지지박탈은 거부적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우울 및 비행발생을 억제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가족원들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Lee, 1993).

특히나 부모로부터의 지지는 유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왔다. Garrison 외(1990)는 청소년기의 우울함이나 부작용 등을 부모의 지지가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Patten 외, 1997). 또한 Amanat와 Bullter(1984)는 우울한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관찰 연구에서 우울한 아동의 부모는 지배적이고 자녀에 대한 지지보다는 통제가 강한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것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우울이 낮다고 하였으며(이정선, 2006),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와 부모와의 친밀함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한다고 하였다(김태련, 1995).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부모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우울이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③ 부모감독과 우울

청소년기는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 것에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많은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감독이 청소년의 심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적관계로 설명한다. Barber 외(1994)는 부모에게서 심리적인 통제를 받았을 때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을 유발하기 쉽다고 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심리적 표현을 제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므로 내향적이 되거나 위축이 된다고 하였다(Seligman & Peterson, 1986). 또한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시키는 부모의 간섭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민병배, 2006).

그리고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집단은 그들의 부모가 자녀양육에 있어 많은 참견과 간섭을 했으며 독립하고 싶은 욕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Jacobson, Fasman, & Dimascio, 1975; Raskin, Boothe, Reatig & Schulterbrandt, 1971). 또한 부모가 엄격한 통제 및 감독을 하며, 이 때에도 죄의식의 유도과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Raskin 등(1971)은 우울한 환자들은 그들의 부모를 정상인들보다 더 관대하게 서술하고 부모가 통제를 할 때에는 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부모의 간섭과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감독과 청소년 우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환경요인과 우울

① 친구지지와 우울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는 청소년기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erkovitz, 1997). 청소년들은 친구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친구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양돈규, 임영식, 1998).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는 것보다 청소년기의 정신적 문제발생을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교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준다(Rae-Grant, 1989). 종단적인(Rae-Grant, 1989), 그리고 단기적인(Hirsch & DuBois, 1992) 연구결과 친구의 지지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중재해 주었으며,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심리학적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가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친구사이의 낮은 인기와 청소년기의 우울함도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hy & Cavanaugh, 1998).

또한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해 덜 친숙하게 느끼고 혼자있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기 보다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사회적 고립의 경향을 보인다(Kandel & Davis, 1986). 이러한 이유로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거나 친구들로부터 자주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 청소년은 우울발생이 높았고(Barrera & Garrieon-Jones, 1992),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낮았다(안인영, 2000). 신재은(199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우울수준을 낮추는데 친구지지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친구지지는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친구지지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② 교사지지와 우울

가족지원과 더불어서, 청소년기에 학교에서의 지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년기의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친구들이나 어른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적 요인들이 중요해지게 된다. 섬세하게 돌보아주는 학교 선생님들은 긍정적인 부모의 역할을 대행할 수도 있으며, 우울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예방에 도움을 준다(Werner & Smith, 1992). 때문에 학교 관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도움을 무시하게 되면 학교 전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십대의 우울함은 알콜이나 마약중독, 임신, 학교폭력, 낮은 성적, 퇴학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McCarthy 외, 1998). 이는 청소년들이 힘들어 할 경우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고려해볼 때, 교사는 청소년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존재이므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귀화(2003)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무관심과 엄격함은 우울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지지와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정은숙(2004)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사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볼 때 청소년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경제적인 박탈을 겪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이 미약하지만

(DuBois 외, 1994), 가정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교사지지가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ae-Grant 외, 1989).

이와 같이 교사지지와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상이한 면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교사지지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인터넷사용환경요인과 우울

① 인터넷사용태도와 우울

인터넷의존은 기본적으로 충동조절의 문제이고, 인터넷사용에 있어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계속해서 가상공간을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김진희 외, 2006). 선행연구에서도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수행을 촉진하는 자기조절능력은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윤영신, 2006).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충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태도가 우울, 불안 등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최윤정, 이시연, 2006).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자기조절에 실패한 성인은 자기조절에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우울을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통제적인 태도가 발달하게 되면, 외부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청소년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조절함으로써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Pyszczynski & Greenberg, 198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조절적인 태도를 인터넷사용에 적용하여 조절적인 인터넷사용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②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우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접근성을 PC방과의 접근성과 친구들의 인터넷사용수준, 인터넷 사용장소,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변수들은 주로 실태중심으로 조사가 되었으므로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청소년의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집, 학교 주변에서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이숙진, 2007), 게임 장소에 있어서 자신의 방과 같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수록 문제적인 게임사용을 하며, 가족관계 및 자기통제력이 인터넷게임의존에 영향을 미칠 때 인터넷사용장소가 매개/조절 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이형초, 안창일, 2002).

또한 Yang과 Tung(2007)은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정도가 유의미하게 우울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족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

① 가족건강성과 인터넷의존

가족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사회화의 1차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건강한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기능적으로 기능하는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청소년기 위기를 바람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약물을 포함한 의존적 행동 또는 부적응적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박선이, 2006).

Griffiths(1991)는 원가족이 건강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성공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갈망을 채우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 Young(1997)은 가족과 분리되었을 때 느끼는 정서적 결핍이 인터넷상에서의 대인간 접촉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터넷 속에서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찾아낸다.

Young(1998)은 인터넷사용자들이 채팅방이나 뉴스그룹, 우편함 등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질적연구를 통해 그와 관련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족 안에서 불화를 많이 경험한 한 청소년은 분노가 많고, 가족간에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청소년은 가족생활의 현실을 도피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 몰입하였다”(Young, 1998, p. 330).

위의 사례에서처럼 인터넷은 일반적으로 실제현실과 거리가 먼 허상의 현

실을 보여주게 되므로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Yen 외(2007)의 연구에서도 가족요인이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가족요인에는 가족만족도, 가족 내 갈등빈도, 가족관계가 포함되었는데 인터넷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유사한 가족요인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가족만족도가 낮고, 가족 내 갈등빈도가 높으며,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인터넷의존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박선이(2006)의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사용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자신의 가족이 가족원간에 유대나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나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전명희(2006)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인터넷중독 위험군보다 비위험군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인터넷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정연, 최영선(2002)은 긍정적인 가족정서,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참여, 가족함께하기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가족기능과 인터넷중독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가족기능이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부모가족과 같이 구조적 요소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다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능적 요소가 더 관련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가족건강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므로 인터넷 의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인터넷의존간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② 부모지지와 인터넷의존

Hamberg(1989)는 가족은 그 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위기에 적응하도록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사회적 지지체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원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지지는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민경, 2008에서 재인용). 또한 Belle와 Longfellow(1984)는 어머니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인격을 함양하게 되며, 아버지의 긍정적 지지를 받은 아동 역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Cohn & Campbell, 1992).

하지만 가족 안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도달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기대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제하고, 규칙과 권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엄격한 가족적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한다. 이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훈계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그 대신에 만족감, 의존적인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Carnes, 1989).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높은 기대감을 내면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벽차게 되면 자기비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Teyber, 1992). 자기비하는 낮은 자존감, 우울, 분노를 유발시키며, 이는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춘범(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인터넷중독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중독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

을 가지게 되는데, 인터넷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가정 대신 찾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문영(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지지가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중독 점수를 보여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낮았다. 또한 안석(2000)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에 중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가족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지지가 인터넷의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③ 부모감독과 인터넷의존

청소년기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폭넓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영향권 밖에서의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는 감독자로서 부모역할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는 자녀들의 인터넷 활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부정적인 환경에의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인터넷을 자녀교육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청소년들의 인터넷활용에 대한 부모들의 무제한적인 방임이나 지나친 간섭은 청소년들의 음성적인 인터넷활용을 조장하거나 청소년들의 가정에의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b).

인터넷에 대한 부모감독 수준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권재환(2005)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감독 및 통제와 인터넷게임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높을 때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심한 청소년들일수록 게임중독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숙진(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지도와 관련하여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였을 때 인터넷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사용에 대하여 학부모의 방임수준이 낮고 역기능적 인터넷사용 통제를 엄격히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를 매개로 했을 때 학부모들의 인터넷사용에 관한 감독 및 통제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낮아졌다.

권정혜(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부모감독 정도는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부모감독은 시간이 변화하였을 때 비중독 상태를 유지하거나 중독경향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많아질 때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 진영희(2002)는 부모의 게임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관심, 규칙설정, 부모의 감독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게임중독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인터넷 감독/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기 쉽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나 통제가 청소년들에게 반발심을 일으켜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부모감독과 인터넷의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학교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

① 친구지지와 인터넷의존

사회화초기에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타자이지만, 청소년이 성장하여 가족보다 더 넓은 사회집단과 접촉이 빈번해지면 중요한 타자의 범주가 부모만이 아니라 또래집단, 선생님, 이성친구 등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주요 타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발달과 자아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친구 및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된다. 하지만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인터넷에 몰입하게 될 수 있다(김윤희, 2005).

Young(1998)은 사례연구를 통해 친구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몰입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류진아(200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 집단이 또래의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지향(2005)의 연구에서도 친구지지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석(2000)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매체는 청소년들 사이에 함께 이용하는 도구이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이나 채팅 등에 참여하므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친구지지와 인터넷의존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친구지지와 인터넷의존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② 교사지지와 인터넷의존

교사지지는 부모·또래의 지지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행동과 기대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학교관련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지향, 2005).

Yang과 Tung(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보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숙진(2007)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였을 때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이 낮게 나타났다. 권윤희(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 충동성, 사회성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운옥, 장서린(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과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간에 인터넷의존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사지지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김종원, 조옥귀(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태도와 인터넷중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황수정(2000)의 연구에서도 교사지

지는 인터넷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김윤희(2005)의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애착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교사지지와 인터넷의존과의 관계 역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와 인터넷의존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인터넷사용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

① 인터넷사용태도와 인터넷의존

Hoffman과 Novak(1996)은 사이버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 자체가 흥미롭고 즐거운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내재적 보상을 느끼게 되고, 자기 스스로 강화되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연구들에서는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자기통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송원영, 2000; 이계원, 2001; 김종래, 2003).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특히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의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Logue(1995)는 자기통제에 실패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되며, 자기통제의 실패로 인해 거식증이나 과식 등의 섭식행동, 약물의존, 운동이나 교육장면에서의 부정행위, 도박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인터넷의존과 인터넷사용에 관한 조절적 태도에 대하여 인터넷사용시간과 인터넷사용목적, 인터넷사용 조절의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Yang 외(2007)는 인터넷중독 학생들은 비중독 학생에 비해 거의 두배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낸다고 하였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인

터넷 하루 이용시간이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윤영미, 박효미, 2006; 손경애, 2005). 때문에 남연옥, 이상준(2005)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시간관리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사용 목적과 관련해서는 오락적 목적의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중독과 정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고(Yang 외, 2007), 조미현(2006)은 인터넷 사용목적이 공부나 학습일 때 가장 중독수준이 낮았고, 온라인게임사용일 때 중독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형초, 안창일(2002)은 인터넷 게임에 대한 태도로 게임조절 의사가 있는 집단이 인터넷중독의 경향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터넷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한 김연순(2004)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그 필요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차단프로그램의 실제 설치에 있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컴퓨터 사용 조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 조절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사용태도와 관련된 변수들은 대부분 실태위주로 조사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사용태도를 청소년의 인터넷의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증을 하고자 한다.

②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인터넷의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개인의 신체,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기회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유해환경은 성인과 청소년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환경에 대한 접촉이나 심리적인 관계에 있어 적절한 통제

가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환경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마홍철, 2001). 강만철, 오익수(2002)는 청소년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친구의 안내로 PC방에서 인터넷을 처음 접하게 되고, PC방을 출입하다가 집에 전용선을 설치하게 되면 인터넷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을 하는 친구와의 심리적인 교류와 인터넷에 대한 지리적 근접도가 높은 것은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류진아(2003)는 청소년의 인접환경에 대한 조사를 인터넷의 가용성, PC방의 가용성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인터넷의 가용성은 인터넷중독 하위변인 중 의존성 및 금단, 내성에 영향을 미쳤고, PC방의 가용성은 청소년의 전체적인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즉, 대체적으로 PC방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수록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았다. 또한 김연화, 정영숙(2005)에 의하면 PC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인터넷의존 경향이 높게 나와서 부모나 어른의 감독이 소홀한 곳에서 인터넷을 무절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접근성과 관련하여, PC 등에 지리적, 금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있거나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인터넷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희, 김경신,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방과의 접근성과 친구들의 인터넷사용수준, 인터넷 사용장소,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정도를 인터넷사용 접근성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우울과 인터넷의존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환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정도의 사용기회를 부여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유독 의존수준의 사용양상을 보인다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이 인터넷의존을 이끄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인터넷의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에 빠져드는 이유를 게임을 통한 대리만족과 의존에 빠지기 쉬운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Young, 1997; Greenfield, 1999).

우울은 울적한 기분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과 무관심 등의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Young(1998)은 우울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집중 연구하였다. Young과 Rodgers(1998)는 온라인 조사에서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 중 자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울함과 연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우울에 대한 평균점수가 일반인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인 것이 밝혀졌다. 또한 Griffiths(1998)가 제안한 인터넷 사용의 중독모델에 따르면, 인터넷은 개인의 현재 무드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병리적인 인터넷사용을 판단함에 있어 흥미로운 것은 우울함, 외로움, 자존감, 그리고 상응하는 감정적 혼란 등과 인터넷사용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McGlinchey(2003)도 비슷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대상자 18명을 중심으로 두개의 그룹을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그룹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적인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9명 중 3명은 평균에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보였으며, 나머지 중 2명은 약간의 우울증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그룹의 경우, 9명 중 아무도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밖에 2,62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ao 외(2007)의 연구

에서도 인터넷의존 그룹이 통제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우울이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우울은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인터넷에 중독되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전효정, 2006).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영(2006)의 연구에서도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또한 박자양(2005)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우울은 인터넷중독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우울은 인터넷의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청소년 인터넷의존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서 새롭게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하면서 정서적인 불안정감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Erikson은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정, 신체구조의 변화,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오는 불안감, 과중한 학업량 등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였고, Fried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 우울, 불안, 좌절과 같은 정서적 변화로 반응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안진희, 2000).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하여 가족적요인, 학교와

같은 청소년 주변환경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부정민, 2007; 오정숙, 2006; McCarthy & Cavanaugh, 1998; Yen, 2008).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지 지 및 관심, 통제 등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가족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우울함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Colomba, Santiago, & Rossello, 1999). 반대로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돌봄의 부재는 아동의 우울을 증가시키며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부재가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Brown, & Bifulco, 1986). 또한 Barber 외(1994)는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과도한 통제를 받은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차이가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감독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우울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안혜원, 2008). 그리고 교사나 친구관계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우울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안인영, 200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는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나 교사의 존재여부에 따라 우울성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사용환경에 있어서도 미성숙한 청소년기에는 환경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되므로 집, 학교 주위환경이 유해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통제감이 덜 발달될수록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진, 2007).

한편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하여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부적응행동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청소년 인터넷의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의존 집단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Young, 1996; Young & Rogers, 1998). 이러한 연구들은 인터넷

의존 집단이 중등도의 우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Young & Rogers, 1998), Gunn(1998) 역시 인터넷중독자들의 우울정도가 중등도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우울함과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볼 때, 청소년의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이 우울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은 인터넷의존과 같은 청소년기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울은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인인 인터넷의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en 등(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직접적으로 인터넷중독 수준이 낮아졌으며, 간접적으로 우울을 통해서 인터넷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이 매개변인이 됨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의 가족환경요인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찾기가 어렵고, 주로 몇가지 개인 및 환경적 변인들과 인터넷의존 성향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변인과 심리적 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인터넷의존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심리적 요인인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가족 및 주변환경요인이 우울을 통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의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이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우울이라는 매개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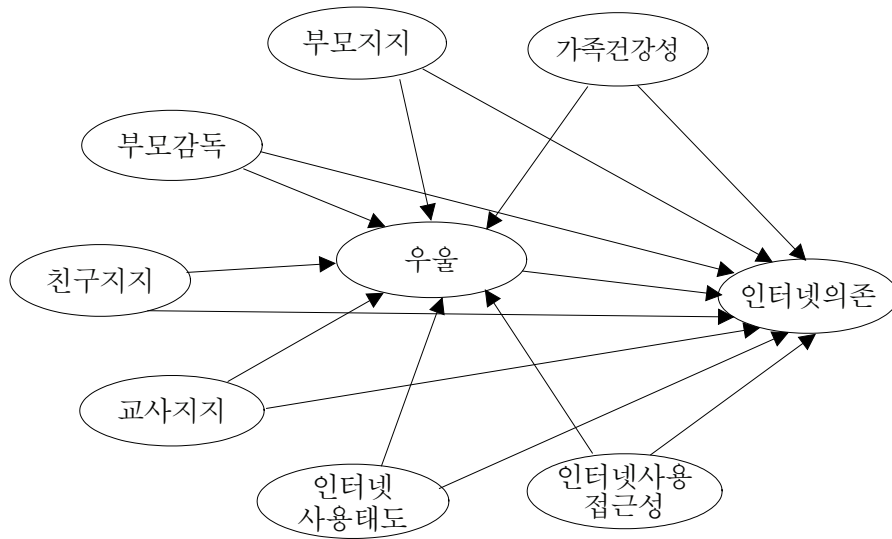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이 외에 대안적인 설명을 해주는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모형비교를 통해 적합도가 좋은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택하고자 이론모형과 경합모형을 제시하였다.

1)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존과 관련되는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들을 외생변인으로 하고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한 인터넷의존 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잠재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이론모형³⁾을 구성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 모형 구성을 위해 배경변인을 제외하고, 외생 변수로는 가족·학교·인터넷사용환경 요인을 선정하였고, 내생변수로는 우울 및 인터넷의존을 선정하여 이론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이론모형은 다음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가족건강성과 부모지지, 부모감독 정도가 낮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 수준이 높을 것이다. 둘째, 친구지지, 교사지지 정도가 낮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 수준이 높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사용태도가 조절적이지 못하고 인터넷사용 접근성이 개방적인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 수준이 높을 것이다. 넷째,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 수준이 높을 것이다. 다섯째, 우울이 선행변수들과 인터넷의존간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경합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모형 외에 2가지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이론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가족환경요인(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통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부분매개모형이다. 그리고 두 경합모형은 이론모형과 동일한 잠재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잠재요인간의 인과관계에만 차이점이 있으며 <그림 2>,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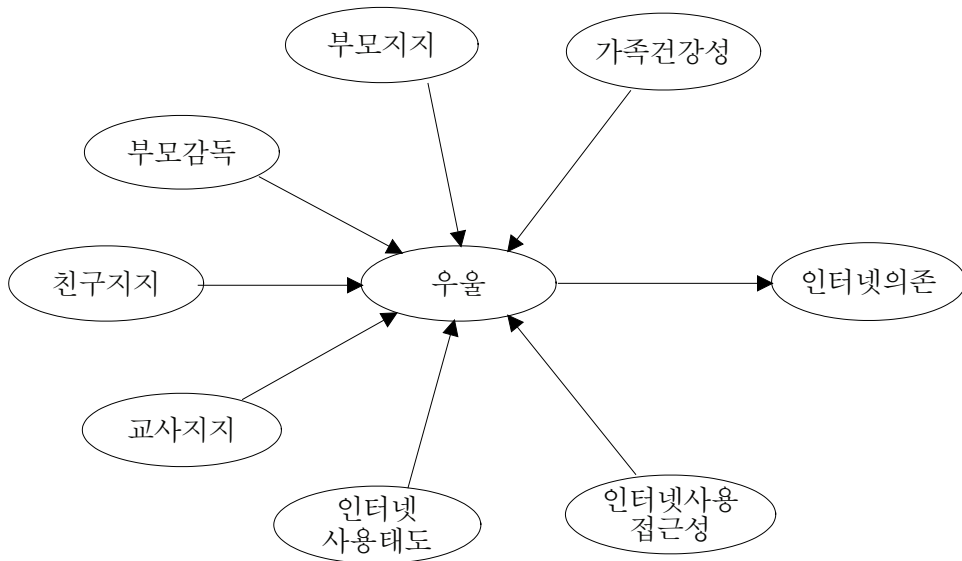
이론모형의 대안적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경합모형 1은 가족환경요인(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고, 경합모형 2는 가족환경요인(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직접모형을 설정하였다.

경합모형 1로 선정한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모형의 검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비교를 시도하는 모형으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다면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외생변수들의 효과가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부정적인 가족적·환경적 요인을 경험하였더라도 인터넷의존이 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우울에 따라 가족적·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합모형 2로 선정한 직접모형은 이론적 배경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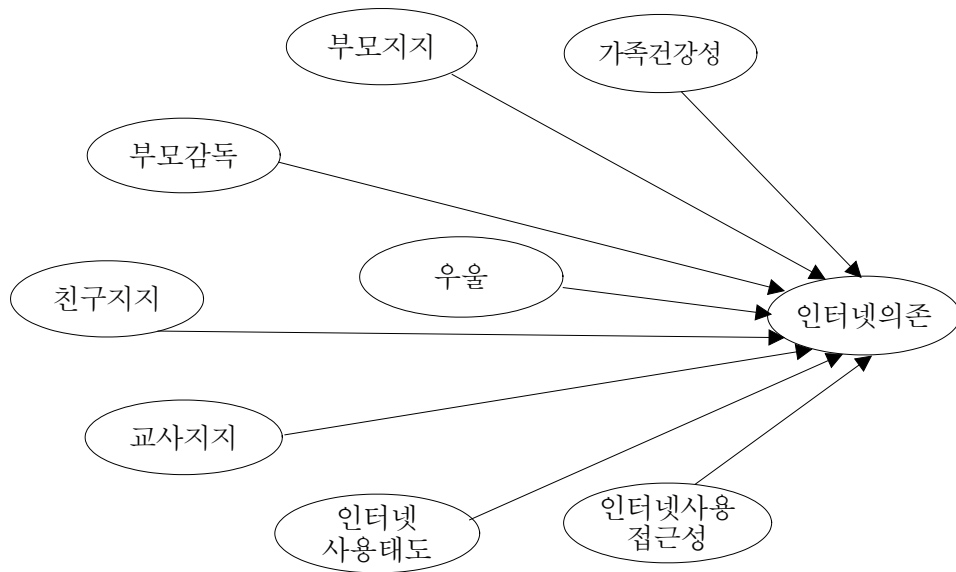
와 같이,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외생변수들이 우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과 경합모형⁴⁾들을 비교·검증하여 인터넷의존을 예측하는데 더 적합하고 간명한 연구모형을 밝혀내고, 유의미한 경로를 찾아내어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경합모형 1

4) 이론모형과 경합모형을 χ^2 차이검증을 통해 직접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모형과 경합모형이 nested 관계에 있어야 한다. 즉, 두 모형이 nested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두 모형이 동일한 constructs와 동일한 측정변수들로 구성되고, 한 모형에서 설정된 모든 경로가 다른 모형에도 설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경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이학식, 임지훈, 2008).



<그림 3> 경합모형 2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변인으로 우울을 선정하여 인터넷의존을 설명하는 가설적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우울이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우울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우울은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1) 가족건강성

건강한 가족은 유영주(1994)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가족원간에 친밀감도 높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위기 시 가족원이 문제에 융통성있게 대처나가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한다. 가족건강성의 측정을 위해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로 하위요인들을 구성하였다.

2) 부모지지

부모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 중 부모와 관련된 지지로서 Dubow와 Ullman(1989)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부모가 사랑이나 인정, 도움, 관심 등을 제공하여 자녀를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3)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남현미(1999)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자녀의 행방에 대한 부모의 전반적 주의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등 자녀의 구체적인 생활모습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소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4) 친구지지

친구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 중 친구와 관련된 지지로서 Dubow와 Ullman(1989)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또래나 친한 친구들을 통해 이해와 격려를 받으며, 도움을 주고 받는 행동을 의미한다.

5)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 중 교사와 관련된 지지로서 Dubow와 Ullman(1989)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학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교사로부터 정보적 도움이나 관심, 인정 등을 받는 행동을 의미한다.

6)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태도는 이형초, 안창일(2002),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c)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

지 및 외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이 목표로 하는 만큼 조절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태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7) 인터넷사용접근성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이숙진(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c)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인터넷에 접근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지리적·금전적 환경과 친구나 부모와 같은 인적환경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개방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8) 우울

우울은 문경주(2004)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절망감, 불안정감, 슬픈 감정이나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거나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우울의 측정을 위하여 우울인지, 거절감, 절망감의 하위요인들을 구성하였다.

9) 인터넷의존

본 연구에서는 Young(1999)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인터넷에 대한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고 일상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인터넷의존 하위요인을 의존성 및 금단증상, 부정적인 결과, 내성으로 구성하였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중학교 4개교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11월 24일에서 28일까지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담임교사와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인터넷사용태도 척도 및 인터넷사용접근성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내용이 청소년에게 너무 어렵거나 응답을 꺼리는 문항들을 포함해 관련 전공분야의 교수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 전반적으로 문항을 재조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사용 용도에 관한 문항은 중복체크하지 않도록 1가지만 기입할 것을 명시하였고, 인터넷의존 평가문항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의존적인 인터넷사용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인터넷의존 척도에서 '인터넷사용시의 개인상황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터넷사용태도 및 접근성에 관한 척도는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신뢰도나 타당도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예비조사 시 사용했던 문항들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고, 설문조사대상 중학교는 유의표집방법에 의하여 학년별, 성별 비율을 고려하였다. 본 조사는 4

개 학교에서 2학년 9학급, 3학년 8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교사들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전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총 689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가 많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38부를 제외하고 6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전체 조사대상자 651명 중 남자가 49.8%, 여자가 50.2%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5세가 55.3%, 3학년에 재학중인 16세가 44.7%이었다.

가족원은 4인 가족이 6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5인 가족이 29.5%, 3인 가족이 1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는 둘째이상이 47.6%로 가장 많았고, 첫째가 36.3%, 외동이 8.6%, 막내 7.5%였다.

조사대상자들이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는 집이 57.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원이 26.1%로 나타났다. 방과 후 시간에 집에 있는 가족원을 조사한 결과 ‘아무도 없음’이 35.5%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30.6%, 형제자매가 24.9%, 조부모가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는 사람으로는 친구가 34.7%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32.9%, 혼자서 해결한다고 보고한 경우도 20.4%나 되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물질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자주 대화하는 가족은 1~2명이 48.4%, 3~4명이 42.7%로 나타났고, 아무도 없는 경우가 3.5%이었다. 평소 자주 대화하는 친구수는 5명 이하가 44.7%로 가장 많았고, 6~10명이 35.8%, 16명 이상이 12.3%로 나타났다. 평

소 자주 대화하는 선생님수는 1~2명이 43.5%로 가장 많았지만 없는 경우도 35.9%나 되었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30.6%로 나타났고, 중상위권 27.0%, 중하위권 24.4%로 나타났다. 부모님 학력은 아버지가 고졸 53.5%, 대졸 29.5%이었으며, 어머니는 고졸 67.9%, 대졸 20.3%로 고졸의 학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관리직, 전문직이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으로 22.1%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28.1%, 서비스직 23.8%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은 중류층이 59.6%, 중하류층이 20.1%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조사대상자들은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들로 그 비율이 비슷하며, 4인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출생순위는 둘째이상이 가장 많았고, 과반수 이상이 방과후 시간을 집에서 보내지만 집에 아무도 없거나 어른이 부재한 비율이 약 60%를 넘고 있다. 이 사실은 좀 더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방과 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아무도 없거나 어른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에 있어 자신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건전하지 못한 여가활동을 한다 해도 통제할 대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는 사람은 친구가 부모보다 조금 더 많았다. 평소 자주 대화하는 가족수, 친구수, 선생님수를 조사하였는데 가족수는 1~2명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했고, 친구수는 5명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선생님은 1~2명이 가장 많았지만 없는 경우도 약 36%로 나타나 선생님과 교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과 선생님간의 교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모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 직업은 관리직, 전문직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와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은 중류층이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51)

| 변 수 | 분 류 | 인원(명) | 비율(%) |
|--------------------|-------------------|-------|-------|
| 성별 | 남자 | 324 | 49.8 |
| | 여자 | 327 | 50.2 |
| 연령(학년) | 15세(중학교 2학년) | 360 | 55.3 |
| | 16세(중학교 3학년) | 291 | 44.7 |
| 가족원수 | 3인 | 67 | 10.3 |
| | 4인 | 392 | 60.2 |
| | 5인 이상 | 192 | 29.5 |
| 출생순위 | 첫째 | 236 | 36.3 |
| | 둘째이상 | 310 | 47.6 |
| | 막내(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49 | 7.5 |
| | 외동이 | 56 | 8.6 |
|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 집 | 371 | 57.0 |
| | 학원 | 170 | 26.1 |
| | 친구집 | 42 | 6.5 |
| | PC방 | 37 | 5.7 |
| | 기타 | 31 | 4.8 |
| 방과 후 시간에 집에 있는 가족원 | 부모님 | 199 | 30.6 |
| | 조부모 | 39 | 6.0 |
| | 형제자매 | 162 | 24.9 |
| | 아무도 없음 | 231 | 35.5 |
| | 기타 | 19 | 2.9 |
|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사람 | 혼자서 해결 | 133 | 20.4 |
| | 부모 | 214 | 32.9 |
| | 친구 | 226 | 34.7 |
| | 형제, 자매 | 57 | 8.8 |
| | 기타 | 21 | 3.2 |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총인원과 다를 수 있음

<표 1> 계속

(N=651)

| 변 수 | 분 류 | 인원(명) | 비율(%) |
|-----------------|--------|-------|-------|
| 평소 대화하는 가족수 | 0명 | 23 | 3.5 |
| | 1~2명 | 315 | 48.4 |
| | 3~4명 | 278 | 42.7 |
| | 5명 이상 | 35 | 5.4 |
| | 5명 이하 | 291 | 44.7 |
| 평소 대화하는 친구수 | 6~10명 | 233 | 35.8 |
| | 11~15명 | 47 | 7.2 |
| | 16명 이상 | 80 | 12.3 |
| | 0명 | 234 | 35.9 |
| 평소 대화하는 선생님수 | 1~2명 | 283 | 43.5 |
| | 3~4명 | 84 | 12.9 |
| | 5명 이상 | 50 | 7.7 |
| | 상 | 46 | 7.1 |
| 학업성적 | 중상 | 176 | 27.0 |
| | 중 | 199 | 30.6 |
| | 중하 | 159 | 24.4 |
| | 하 | 71 | 10.9 |
| | 중졸이하 | 42 | 6.5 |
| 아버지 학력 | 고졸 | 348 | 53.5 |
| | 대졸 | 192 | 29.5 |
| | 대학원졸이상 | 33 | 5.1 |
| | 기타 | 34 | 5.2 |
| | 중졸이하 | 32 | 4.9 |
| 어머니 학력 | 고졸 | 442 | 67.9 |
| | 대졸 | 132 | 20.3 |
| | 대학원졸이상 | 12 | 1.8 |
| | 기타 | 31 | 4.8 |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총인원과 다를 수 있음

<표 1> 계속

(N=651)

| 변 수 | 분 류 | 인원(명) | 비율(%) |
|-------------|----------|-------|-------|
| 부모님 직업유무 | 맞벌이 | 431 | 66.2 |
| | 아버지만 | 180 | 27.6 |
| | 어머니만 | 28 | 4.3 |
| | 기타 | 12 | 1.8 |
| 아버지 직업 | 관리직, 전문직 | 169 | 26.0 |
| | 사무직 | 144 | 22.1 |
| | 서비스직 | 97 | 14.9 |
| | 단순노무직 | 42 | 6.5 |
| | 생산직 | 81 | 12.4 |
| | 기타 | 106 | 16.3 |
| 어머니 직업 | 관리직, 전문직 | 72 | 11.1 |
| | 사무직 | 78 | 12.0 |
| | 서비스직 | 155 | 23.8 |
| | 단순노무직 | 28 | 4.3 |
| | 생산직 | 61 | 9.4 |
| | 전업주부 | 183 | 28.1 |
| | 기타 | 68 | 10.4 |
| 경제적 수준 | 상류층 | 7 | 1.1 |
| | 중상류층 | 96 | 14.7 |
| | 중류층 | 388 | 59.6 |
| | 중하류층 | 131 | 20.1 |
| | 하류층 | 27 | 4.1 |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총인원과 다를 수 있음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족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족 건강성과 부모지지, 부모감독 척도, 학교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친구지지, 교사지지 척도,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의 가족환경을 더 많이 반영해줄 수 있는 가족건강성척도를 선정하였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 유영주(1995)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게 제작·개발한 척도이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유사한 문항은 통합하고, 연구 대상자가 중학생임을 감안하여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부분 수정한 후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 4개 하위요인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족원간의 유대는 가족원간의 친밀감, 애정,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의 화목, 관심, 지지, 사생활 인정 등의 정서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정도, 개방성, 명확성,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 유형, 의사결정시의 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문제나 위기발생 시 가족원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의 가치체

계 공유는 가족만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있는지, 가족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가족원이 모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가족건강성 및 각 하위 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은주, 유영주(1995)의 척도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a*)는 가족원간의 유대 .9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88,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8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80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가족의 건강성은 .94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가족원간의 유대 .86,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84,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86,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71이었고, 전반적인 가족건강성은 .94로 나타났다.

2) 부모지지

부모지지는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인 문제 발생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지지 정도를 알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2000)가 제작한 부모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지지 척도의 내용은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가,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믿어주는가의 정도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인 지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지지는 단일측정변인이므로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하게 하기 위

해 문항의 내용에 따라 파슬(parcel)⁵⁾을 하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전영자, 서문영(2006)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는 .81이었다.

3) 부모감독

청소년의 가족환경에 대해 선행연구(김정애, 2006; 오현화, 2002; 전필선, 2009)에서는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문항을 통해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감독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감독 척도는 박성수(1994)와 김준호·김은경(1995)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남현미(1999)가 재구성한 척도이다. 부모감독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자녀가 외출하였을 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4개 문항과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를 알아보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또한 평소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에 일정한 한계와 규칙을 정해 주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감독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평소에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감독 척도도 단일측정변인이므로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하게 하기 위

5) 전체 척도 문항의 성격이 비슷할 때, 2개 이상의 항목이나 응답들을 임의로(random) 그룹핑하는 방법

해 문항의 내용에 따라 파슬(parcel)을 하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남현미(199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는 .81이었다.

4) 친구지지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최초의 파트너로(Berndt, 1982), 친구는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Woodward & Fergusson,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친구의 지지수준을 알아본 Dubow와 Ullman (1989)의 친구지지 척도를 선정하였다.

친구지지 문항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가,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는가,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친구들이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가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친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구지지 척도도 단일측정변인이므로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문항의 내용에 따라 파슬(parcel)을 하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홍나미, 정영순(199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9이었고, 문수경(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는 .87이었다.

5) 교사지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서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를 받는 청소년은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갖게 되므로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임수경,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교사의 지지수준을 살펴본 Dubow와 Ullman(1989)의 교사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지지 문항은 선생님과 가까운가,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어려운가,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가,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가, 선생님은 나를 격려해주시는가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된다.

교사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7번 문항을 제외한 4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교사지지 척도도 단일측정변인이므로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문항의 내용에 따라 파슬(parcel)을 하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홍나미, 정영순(199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7이었고, 문수경(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는 .80이었다.

6) 인터넷사용태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시간제한이나(이숙진, 2007)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의 종류(서주현, 유안진, 2001), 인터넷사용에 대한 조절의사(이형초, 안창일, 2002) 등이 인터넷사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형초, 안창일(2002),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c)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인터넷사용태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가족학 전공자와 인터넷의존상담기관 전문가 4인에게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수정·보완하였다.

인터넷사용태도 문항은 인터넷 사용시간 지정여부, 인터넷 조절의사, 인터넷 사용제한 프로그램, 인터넷 사용용도에 대한 조절적인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부록 2 참조).

인터넷사용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조절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사용태도 척도도 단일측정변인이므로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문항의 내용에 따라 파슬(parcel)을 하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인터넷사용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79이었다.

7) 인터넷사용접근성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환경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지리적 근접도(김연화, 정영숙, 2005; 류진아, 2003)와 인터넷을 하는 친구의 영향(김윤희, 2006) 등이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이숙진(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c)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가족학 전공자와 인터넷의존상담기관 전문가 4인에게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수정·보완하였다.

인터넷사용접근성에 관한 척도는 컴퓨터 위치, PC방 위치, PC방 이용 여건, 인터넷에 대한 부모의 관심, 친구들의 인터넷 사용량 등을 통해 인터넷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부록 2 참조).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인터넷사용환경이 개방적이어서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도 단일측정변인이므로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문항의 내용에 따라 파슬(parcel)을 하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의 신뢰도는 .68이었다.

8) 우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우울 척도들이 임상장면에서의 진단이나 치료과정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것에 반해

현재의 우울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선정하였고, 문경주(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제작한 도구로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상실, 수면장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을 우울인지, 거절감, 절망감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문항 4개를 제외하고 총 16문항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없었다'(0점)에서 '많이 있었다'(3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경주(2004)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우울인지가 .83, 거절감이 .76, 절망감이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전체 문항은 .91,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우울인지 .86, 거절감 .78, 절망감 .81로 나타났다.

9) 인터넷의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 진단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Young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위험자군에 비해 잠재적위험자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청소년 인터넷의존의 예방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로 윤재희(1998)가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의존성 및 금단증상(13문항), 부정적 결과(3문항), 내성(4문항) 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의존에 관한 3개 하위요인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존성 및 금단증상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강박적인 갈망이나 행동반응 또는 인터넷사용 중단시 유발되는 불편한 감정이나 신체적인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결과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학업적 영역과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겪게 되는 문제나 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내성은 인터넷을 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인터넷의존 및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인터넷의존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숙진(2007)의 연구에서는 의존성 및 금단증상 .87, 부정적인 결과 .76, 내성 .7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가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의존성 및 금단증상 .89, 부정적인 결과 .83, 내성 .68이었고, 전반적인 인터넷의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이상의 측정도구들의 구성과 신뢰도를 요약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척도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수 | 신뢰도 |
|--------------|--------------------|--|-----|-----|
| 가족건강성 | 가족원간의 유대 | 2, 3, 4, 6, 7, 8, 9, 16, 21 | 9 | .86 |
|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 5, 10, 11, 12, 13, 14, 15 | 7 | .84 |
| |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 22, 23, 24, 25, 26, 27 | 6 | .86 |
| |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 1, 17, 18, 19, 20 | 5 | .71 |
| 부모지지 | 부모지지 1 | 1, 4 | 2 | .63 |
| | 부모지지 2 | 2, 3 | 2 | .78 |
| 부모감독 | 부모감독 1 | 1, 4, 5, 6, 7, 10 | 6 | .74 |
| | 부모감독 2 | 2, 3*, 8, 9 | 4 | .68 |
| 친구지지 | 친구지지 1 | 1, 2 | 2 | .76 |
| | 친구지지 2 | 3, 4, 5 | 3 | .85 |
| 교사지지 | 교사지지 1 | 6, 8 | 2 | .71 |
| | 교사지지 2 | 9, 10 | 2 | .88 |
| 인터넷 사용태도 | 사용태도 1 | 1, 2 | 2 | .73 |
| | 사용태도 2 | 3, 4, 5 | 3 | .69 |
| 인터넷사용 접근성 | 사용접근성 1 | 1, 4, 5 | 3 | .63 |
| | 사용접근성 2 | 2, 3 | 2 | .61 |
| 우울 | 우울인지 | 1, 2, 3, 5, 9, 10, 11, 13, 14 | 9 | .86 |
| | 거절감 | 12, 15 | 2 | .78 |
| | 절망감 | 4, 6, 7, 8, 16 | 5 | .81 |
| 인터넷의존 | 의존성 및 금단증상 | 3, 4,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 13 | .89 |
| | 부정적인 결과 | 5, 6, 8 | 3 | .83 |
| | 내성 | 1, 2, 7, 16 | 4 | .68 |

*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5.0과 AMOS 7.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인터넷사용 및 의존실태를 파악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⁶⁾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터넷사용 실태, 인터넷의존 실태,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변수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수의 타당도와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서 AMOS 7.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모형의 모형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경합모형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교차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집단동일성을 검증하였고, 주요한 변수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6)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므로 분석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은 측정오차를 무시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이 유도될 수 있지만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이러한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때문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송지준, 2008).

둘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해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잡한 여러개 변수들간의 관계를 쉽게 측정하고 전체 모델을 평가할 수도 있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볼 수도 있다(송지준, 2008).

셋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의 사용이 용이하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는 하나의 역할만 해야 하므로 매개변수의 도입 및 평가가 쉽지 않다.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측정변수가 사용되므로 측정오류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홍세희, 2000).

넷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연구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 즉,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모형이 실제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그 모형을 타당한 모형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정할 수 있다(홍세희, 2000).

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사용 및 의존실태를 먼저 살펴본 후, 잠재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의존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경합모형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연구모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동일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1. 변인들에 관한 기초분석 결과

1) 연구대상의 인터넷사용 및 의존실태

(1) 인터넷사용 실태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1~3학년이 4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이전도 11.2%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인터넷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30.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시간~3시간 미만이 29.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평균 2시

간 이상 인터넷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현화(2002)의 연구에서 보고한 28.8%, 이숙진(2007)의 연구에서 보고한 44.9%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들이 적당하다고 지각하는 인터넷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2시간 미만이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시간~3시간 미만이 29.3%로 나타나서, 1~2시간 미만의 비율이 실제 인터넷 사용시간 비율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친구들과 비교한 결과 ‘보통이다’가 39.2%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에 비해 적게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41.1%,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19.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구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친구들에 비해 인터넷을 적게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 동기는 ‘그냥 심심해서’가 43.8%, 그 다음으로 ‘재미있으니까’가 40.7%로 나타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한편 인터넷의 용도는 온라인게임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검색 18.3%, 채팅 9.8%의 순이었고, 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는 3.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외의 여가활동을 살펴본 결과 TV, 비디오시청이 41.8%, 친구 만나기 22.0%, 음악듣기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TV나 비디오 시청과 같이 수동적이고 혼자하는 활동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인터넷을 하게 되는 비율이 높으며, 그러한 이유로 온라인게임과 같이 재미를 위한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외에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여부와 사용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모님 두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고, 두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9.8%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수준은 간단한 것만 사용하는 정도가 65.6%, 능숙하게 사용 24.7%, 거의 사용할 줄 모름이 9.7%의 순이었다.

인터넷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수준은 ‘전혀 없다’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끔 있다’ 41.5%, ‘자주 있다’ 12.0%, ‘매우 자주 있다’ 3.7%의 순이었다. 즉, 인터넷으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있어본 경우가 57.2%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가정에서 인터넷사용에 관해 부모자녀가 불일치한 견해를 갖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다양한 청소년문화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방법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인터넷 사용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비율이 높았고, 인터넷을 하루 평균 1시간~3시간 미만 사용하는 편이며, 1시간~2시간 미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친구들에 비해 인터넷을 적게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심심하거나 재미를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게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외의 여가활동으로는 TV, 비디오 시청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에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TV나 비디오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Young(1997)은 비디오 게임중독자들이 심리적 흥분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흥분은 인터넷중독으로 이르게 하는 잠재적 요인이라고 하면서,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중독과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의 부재가 또 다른 매체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외의 다양한 여가활동 창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고, 간단한 것만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과반수 이상이 부모와 인터넷 사용에 관해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터넷사용 실태 (N=651)

| 변 수 | 분 류 | 인원(명) | 비율(%) |
|------------------------------|---------------------|-------|-------|
| 인터넷 사용 시작시기 | 초등학교 이전 | 73 | 11.2 |
| | 초등학교 1~3학년 | 323 | 49.6 |
| | 초등학교 4~6학년 | 255 | 39.2 |
| 인터넷 사용시간 | 1시간 미만 | 80 | 12.3 |
| | 1시간~2시간 미만 | 201 | 30.9 |
| | 2시간~3시간 미만 | 191 | 29.3 |
| | 3시간~4시간 미만 | 80 | 12.3 |
| | 4시간~5시간 미만 | 52 | 8.0 |
| | 5시간 이상 | 47 | 7.2 |
| 본인이 적당하다고 지각한 인터넷 사용시간 | 1시간 미만 | 38 | 5.8 |
| | 1시간~2시간 미만 | 338 | 51.9 |
| | 2시간~3시간 미만 | 191 | 29.3 |
| | 3시간~4시간 미만 | 45 | 6.9 |
| | 4시간~5시간 미만 | 19 | 2.9 |
| | 5시간 이상 | 20 | 3.0 |
| 친구들과 비교한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 |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 51 | 7.8 |
| | 적게 하는 편이다 | 217 | 33.3 |
| | 보통이다 | 255 | 39.2 |
| | 약간 많이 하는 편이다 | 97 | 14.9 |
| |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다 | 31 | 4.8 |
| | 친구와의 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 16 | 2.5 |
| 인터넷 사용 동기 | 그냥 심심해서 | 285 | 43.8 |
| | 재미있으니까 | 265 | 40.7 |
| |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 44 | 6.8 |
| | 정보를 얻기 위해 | 41 | 6.3 |

<표 3> 계속

(N=651)

| 변 수 | 분 류 | 인원(명) | 비율(%) |
|-----------------------|------------------------|-------|-------|
| 인터넷의 용도 | 정보검색 | 119 | 18.3 |
| | 학습에 도움 | 23 | 3.5 |
| | 이메일 | 11 | 1.7 |
| | 채팅 | 64 | 9.8 |
| | 동호회/게시판 활동 | 37 | 5.7 |
| | 온라인게임 | 339 | 52.1 |
| | 기타 | 58 | 8.9 |
| 인터넷 외의 여가활동 | TV, 비디오 시청 | 272 | 41.7 |
| | 친구만나기 | 143 | 22.0 |
| | 운동하기 | 36 | 5.5 |
| | 잠자기 | 33 | 5.1 |
| | 음악듣기 | 113 | 17.4 |
| | 독서하기 | 32 | 4.9 |
| 부모님의 인터넷사용여부 | 기타 | 22 | 3.4 |
| | 두분 모두 사용 | 276 | 42.4 |
| | 아버지만 사용 | 135 | 20.7 |
| | 어머니만 사용 | 111 | 17.1 |
| 부모님의 인터넷사용수준 | 두분 모두 사용 안함 | 129 | 19.8 |
| | 거의 사용할 줄 모름 | 63 | 9.7 |
| | 간단한 것만 사용가능 능숙하게 사용 | 427 | 65.6 |
| 인터넷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수준 | 161 | 24.7 | |
| | 전혀없다 | 279 | 42.9 |
| | 가끔있다 | 270 | 41.5 |
| | 자주있다 | 78 | 12.0 |
| 매우 자주 있다 | 24 | 3.7 | |

(2) 인터넷의존 실태

본 연구에서는 Young(1998)이 제시한 인터넷중독 기준을 적용하여 인터넷의존 비율을 조사하였다. Young의 기준에 따르면, 20~49점은 일반사용자군, 50~79점일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잠재적 위험자군, 80점 이상은 고위험자군으로 나누어진다.

조사결과 <표 4>와 같이 일반사용자군은 65.7%, 잠재적위험자군은 30.4%, 고위험자군은 3.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숙진(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비율이 잠재적위험자군 24.7%, 고위험자군 1.2%로 나타났고, 김교현(2001)의 연구에서는 잠재적위험자군이 24.0%, 고위험자군이 2.0%로 나타나 본 연구의 고위험자군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인터넷의존을 세집단으로 구분하면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절단점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박미자(2005)의 연구에서는 40점 미만을 경증집단, 40~69점을 중등증집단, 70~100점을 중증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하였고, 이계원(2001), 김혜원(2001)의 연구와 같이 49점 이하를 비중독집단, 50~100점을 중독집단으로 분류하여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의존 수준은 일반사용자군이 약 66%정도로 나타났고, 잠재적위험자군이 약 30%로 나타나서 선행연구의 잠재적위험자군의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4> 인터넷의존 실태

(N=651)

| 구 분 | 점 수 | 인 원 | % |
|---------|--------|-----|------|
| 일반사용자군 | 20-49 | 428 | 65.7 |
| 잠재적위험자군 | 50-79 | 198 | 30.4 |
| 고위험자군 | 80-100 | 25 | 3.8 |

2)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존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9개의 잠재변인과 16개의 측정변인들을 구성하였고,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가족건강성의 평균은 3.15(SD=16.43)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의 가족건강성은 보통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지지는 3.78(SD=3.23)이며, 부모감독은 3.67(SD=6.15), 친구지지는 3.69(SD=3.4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구대상자들의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지지는 2.98(SD=3.85)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지변인에 비해 평균이 낮았다. 인터넷사용태도의 평균은 2.64(SD=4.61)이고, 인터넷사용접근성은 2.82(SD=3.94), 인터넷의존은 2.21(SD=13.99)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대상자들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 인터넷의존 수준에 대해 보통수준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81(SD=9.84)로 나타나서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 잠재변인의 기술통계

| 변수 | 문항평균 | 표준편차 | 측정된 점수범위 |
|----------|------|-------|----------|
| 가족건강성 | 3.15 | 16.43 | 26~126 |
| 부모지지 | 3.78 | 3.23 | 4~20 |
| 부모감독 | 3.67 | 6.15 | 18~50 |
| 친구지지 | 3.69 | 3.40 | 5~25 |
| 교사지지 | 2.98 | 3.85 | 5~25 |
| 인터넷사용태도 | 2.64 | 4.61 | 5~25 |
| 인터넷사용접근성 | 2.82 | 3.94 | 5~25 |
| 우울(4점척도) | .81 | 9.84 | 0~48 |
| 인터넷의존 | 2.21 | 13.99 | 20~100 |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변인들간에 상관이 .70이상인 변인들이 없어서 잠재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건강성은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변수들과 상관계수 $r=.31 \sim .60(p<.001)$ 의 범위에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우울($r=-.208, p<.001$)과 인터넷의존($r=-.151, p<.001$)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부모감독,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태도와 상관계수 $r=.18 \sim .43(p<.001)$ 의 범위에서 정적상관이 있었고, 우울($r=-.205, p<.001$)과 인터넷의존($r=-.172, p<.001$)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부모감독은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태도와 상관계수 $r=.17\sim.30$ ($p<.001$)의 범위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인터넷사용접근성($r=-.172$, $p<.001$)과 인터넷의존($r=-.174$, $p<.001$)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r=-.061$,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교사지지($r=.180$, $p<.001$), 인터넷사용태도($r=.137$, $p<.001$)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r=-.172$, $p<.001$)과 인터넷의존($r=-.267$, $p<.001$)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

교사지지는 인터넷사용태도($r=.230$, $p<.001$)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고, 우울($r=-.118$, $p<.001$)과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존($r=-.042$,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태도는 인터넷사용접근성($r=-.196$, $p<.001$)과 부적의 상관이 있었고, 인터넷의존($r=-.204$, $p<.001$)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r=-.027$,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우울($r=.133$, $p<.001$)과 인터넷의존($r=.299$, $p<.001$)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우울은 인터넷의존($r=.278$, $p<.0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N=65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가족건강성 | 1 | | | | | | | | |
| 2. 부모지지 | .599 *** | 1 | | | | | | | |
| 3. 부모감독 | .520 *** | .433 *** | 1 | | | | | | |
| 4. 친구지지 | .356 *** | .263 *** | .295 *** | 1 | | | | | |
| 5. 교사지지 | .312 *** | .218 *** | .165 *** | .180 *** | 1 | | | | |
| 6. 인터넷 사용태도 | .327 *** | .178 *** | .304 *** | .137 *** | .230 *** | 1 | | | |
| 7. 인터넷사용 접근성 | -.068 | -.060 | -.172 *** | -.027 | -.056 | -.196 *** | 1 | | |
| 8. 우울 | -.208 *** | -.205 *** | -.061 | -.172 *** | -.118 *** | -.027 | .133 *** | 1 | |
| 9. 인터넷의존 | -.151 *** | -.172 *** | -.174 *** | -.267 *** | -.042 | -.204 *** | .299 *** | .278 *** | 1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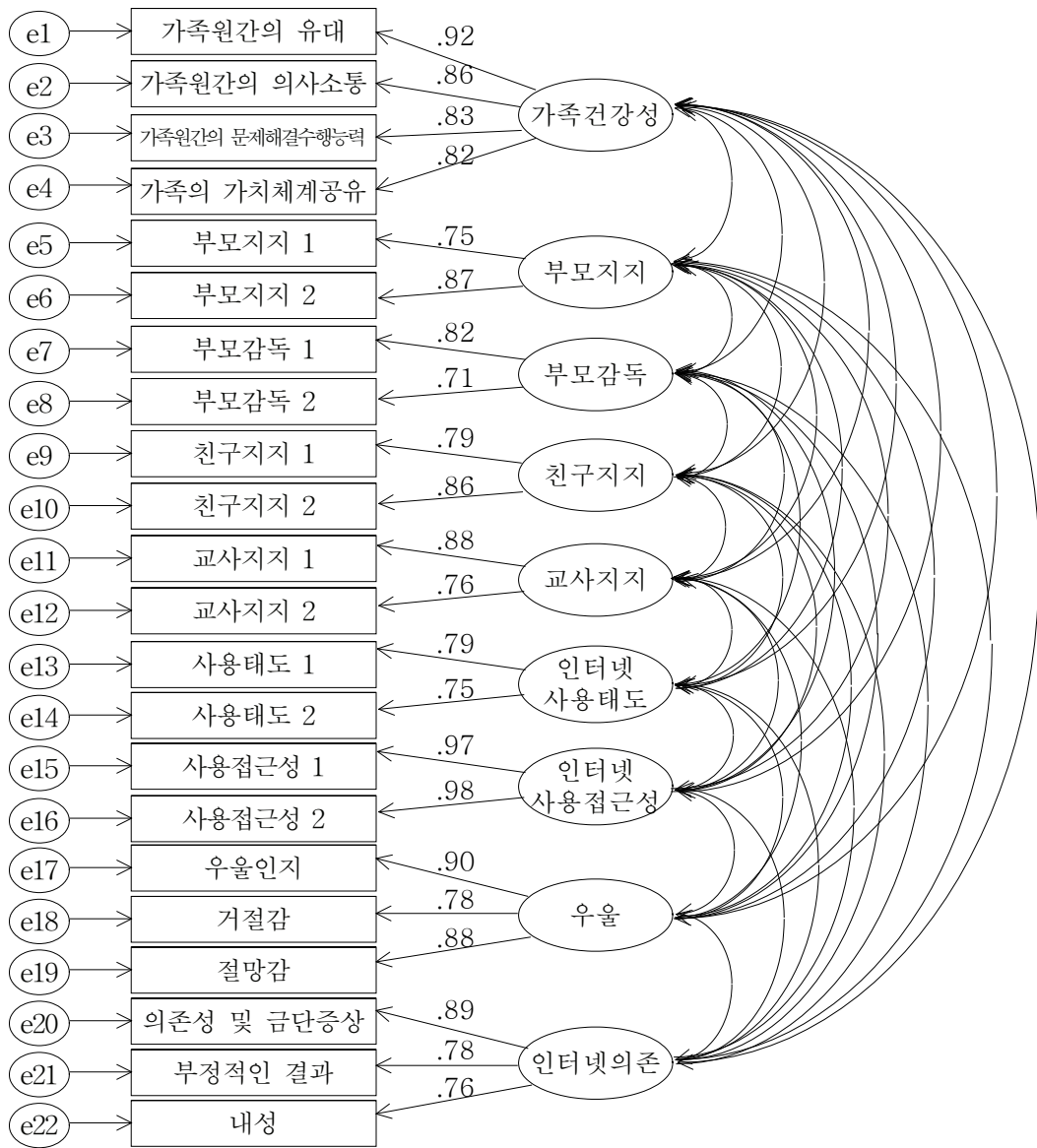
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위척도의 개념에 대한 측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9개의 하위척도(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 우울, 인터넷의존)로 구성된 22개의 측정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측정모형의 상관관계는 <부록 3>에 제시하였으며, 측정모형 검증은 AMOS 7.0 program을 이용하였고, 모수 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구성개념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측정모형을 구성한 결과는 <그림 4>와 <표 7>, <표 8>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7>을 살펴보면, 측정변수의 모든 C.R.(critical ratio)값이 유의수준 .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경로로 추정되어, 모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잠재요인들에 대한 표준화 회귀계수(β)가 모두 .71이상이어서 그 값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하위척도들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그림 4>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표 7> 측정모형 분석

(N=651)

| 잠재변수 | 측정변수 | B | β | SE | C.R. | p |
|--------------|----------------|-------|---------|------|--------|-----|
| 가족건강성 | 가족원간의 유대 | 1.000 | .921 | | | |
|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 .927 | .863 | .028 | 32.846 | *** |
| | 가족원간의 문제해결수행능력 | .964 | .827 | .032 | 29.988 | *** |
| |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 .848 | .816 | .029 | 29.142 | *** |
| 부모지지 | 부모지지 1 | 1.000 | .750 | | | |
| | 부모지지 2 | 1.227 | .868 | .068 | 17.998 | *** |
| 부모감독 | 부모감독 1 | 1.000 | .816 | | | |
| | 부모감독 2 | .925 | .711 | .061 | 15.072 | *** |
| 친구지지 | 친구지지 1 | 1.000 | .792 | | | |
| | 친구지지 2 | 1.129 | .860 | .083 | 13.596 | *** |
| 교사지지 | 교사지지 1 | 1.000 | .882 | | | |
| | 교사지지 2 | 1.022 | .759 | .099 | 10.329 | *** |
| 인터넷 사용태도 | 사용태도 1 | 1.000 | .794 | | | |
| | 사용태도 2 | .883 | .750 | .077 | 11.529 | *** |
| 인터넷 사용접근성 | 사용접근성 1 | 1.000 | .967 | | | |
| | 사용접근성 2 | .933 | .983 | .023 | 40.076 | *** |
| 우울 | 우울인지 | 1.000 | .901 | | | |
| | 거절감 | .970 | .776 | .040 | 24.098 | *** |
| | 절망감 | 1.047 | .879 | .037 | 28.141 | *** |
| 인터넷의존 | 의존성 및 금단증상 | 1.000 | .892 | | | |
| | 부정적인 결과 | 1.160 | .782 | .054 | 21.689 | *** |
| | 내성 | 1.043 | .756 | .050 | 20.960 | *** |

*** p<.001

<표 8> 잠재변인들간의 공분산

| | | r | SE | C.R. | p |
|--------------|----------|-------|------|--------|------|
| 가족건강성 | 부모지지 | .733 | .028 | 11.967 | *** |
| | 부모감독 | .660 | .021 | 11.776 | *** |
| | 친구지지 | .449 | .021 | 8.525 | *** |
| | 교사지지 | .385 | .025 | 7.964 | *** |
| | 인터넷사용태도 | .420 | .031 | 8.028 | *** |
| | 인터넷사용접근성 | -.046 | .024 | -1.123 | .261 |
| | 우울 | -.265 | .018 | -5.980 | *** |
| | 인터넷의존 | -.179 | .020 | -4.058 | *** |
| 부모지지 | 부모감독 | .620 | .023 | 9.986 | *** |
| | 친구지지 | .368 | .021 | 6.729 | *** |
| | 교사지지 | .273 | .025 | 5.412 | *** |
| | 인터넷사용태도 | .274 | .030 | 5.149 | *** |
| | 인터넷사용접근성 | -.045 | .025 | -1.035 | .301 |
| | 우울 | -.269 | .019 | -5.593 | *** |
| | 인터넷의존 | -.200 | .021 | -4.188 | *** |
| 부모감독 | 친구지지 | .401 | .018 | 7.165 | *** |
| | 교사지지 | .236 | .021 | 4.642 | *** |
| | 인터넷사용태도 | .445 | .028 | 7.655 | *** |
| | 인터넷사용접근성 | -.166 | .022 | -3.607 | *** |
| | 우울 | -.096 | .016 | -2.024 | * |
| | 인터넷의존 | -.190 | .018 | -3.877 | *** |
| 친구지지 | 교사지지 | .242 | .022 | 4.844 | *** |
| | 인터넷사용태도 | .176 | .026 | 3.436 | *** |
| | 인터넷사용접근성 | -.012 | .021 | -.266 | .790 |
| | 우울 | -.223 | .017 | -4.703 | *** |
| | 인터넷의존 | -.293 | .019 | -5.904 | *** |
| 교사지지 | 인터넷사용태도 | .288 | .033 | 5.501 | *** |
| | 인터넷사용접근성 | -.040 | .027 | -.931 | .352 |
| | 우울 | -.147 | .020 | -3.214 | *** |
| | 인터넷의존 | -.075 | .022 | -1.631 | .103 |
| 인터넷 사용태도 | 인터넷사용접근성 | -.221 | .034 | -4.690 | *** |
| | 우울 | -.061 | .024 | -1.279 | .201 |
| | 인터넷의존 | -.261 | .028 | -5.174 | *** |
| 인터넷 사용접근성 | 우울 | .141 | .021 | 3.378 | *** |
| | 인터넷의존 | .362 | .025 | 7.993 | *** |
| 우울 | 인터넷의존 | .338 | .018 | 7.245 | *** |

* p<.05, *** p<.001

측정모형에 대한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로 판단한다.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적합도 지수들은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홍세희, 2000). 첫째,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자료에 잘 부합되는 동시에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들 중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GFI(기초부합치), AGFI(조정부합치), NFI(표준부합치), TLI(비표준적합지수), CFI(비교적합지수), RMSEA(개략화오차평균)를 고려하였다. 적합도 지수들의 대략적인 기준으로는 GFI, AGFI, NFI, TLI가 1.0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90이상이어야 좋은 적합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CFI 역시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계수, 2006). 그리고 RMSEA는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본다(홍세희, 2000). 그리고 카이제곱 검증 즉, χ^2 확률치를 사용하여 χ^2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다고 보는 검증방법은 카이제곱 값이 표본의 크기와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합도 지수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χ^2 값을 검정통계량으로 간주하는 대신 대략적인 모형에 대한 양호도의 척도로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모형을 채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를 <표 9>를 통해 살펴보면, GFI가 .933, AGFI가 .902, NFI가 .944, TLI가 .949로 기준치인 .90이상이며, CFI는 .961로 .95이상의 적합도를 나타냈고, RMSEA는 .055로서 허용치인 .08이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그 기준을 충족시켜 측정모형이 충분한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 모형 | χ^2 | GFI | AGFI | NFI | TLI | CFI | RMSEA |
|------|---------------------|------|------|------|------|------|-------|
| 측정모형 | 520.514 (df=173) | .933 | .902 | .944 | .949 | .961 | .055 |

3. 연구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이 충분히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1) 이론모형의 적합도 검증

이론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표 10>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χ^2 값은 표집의 크기에 따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홍세희, 2000)이 있어서 본 연구는 자유도와 독립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GFI가 .933, AGFI가 .902, NFI가 .942, TLI가 .947, CFI가 .960으로 모두 기준치인 .90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RMSEA 지수도 .055로 나타나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이론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 모형 | χ^2 | GFI | AGFI | NFI | TLI | CFI | RMSEA |
|------|------------------------------|------|------|------|------|------|-------|
| 이론모형 | 512.563 (<i>df</i> =173) | .933 | .902 | .942 | .947 | .960 | .055 |

2) 경합모형과의 비교검증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존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가장 적합하게 보여주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론모형 이외에 2개의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론모형은 가족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변인인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통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대안적 설명을 해주기 위한 첫 번째 경합모형은 가족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변인인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가족환경변인인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론모형과 경합모형들에 대한 전반적 적합도 지수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이론모형과 경합모형간 적합도 지수들의 비교

| 구조모형 | χ^2 | df | p | TLI | CFI | RMSEA (90%신뢰구간) | ECVI |
|-------------|----------------|--|------|--|------|--------------------------------------|-------|
| 이론모형 (모형A) | 512.563 | 173 | .000 | .947 | .960 | .055 (.049-.060) | 1.035 |
| 경합모형1 (모형B) | 557.451 | 179 | .000 | .943 | .956 | .057 (.052-.062) | 1.085 |
| 경합모형2 (모형C) | 552.008 | 179 | .000 | .944 | .957 | .057 (.051-.062) | 1.077 |
| χ^2 차이 | 모형A:B 모형A:C | $\chi^2_B - \chi^2_A = 44.888$ $\chi^2_C - \chi^2_A = 39.445$ | | $df_B - df_A = 6$ $df_C - df_A = 6$ | | $p = .000 < .05$ $p = .000 < .05$ | |

경합모형들은 이론모형에 포함된 모형이므로, χ^2 차이 검사를 통해 하나의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론모형과 경합모형들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χ^2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론모형과 경합모형 1, 2와의 유의확률(p)이 .000으로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모형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영가설(H_0 =이론모형과 경합모형 1/경합모형 2는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을 기각한다. 그리고 표본크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χ^2 차이검증 외에도 다른 적합도 지수들 TLI, CFI, RMSEA를 비교한 결과, 이론모형의 적합도가 경합모형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론모형과 경합모형 1, 경합모형 2의 차이가 유의하며,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들과 교차타당화지수 ECVI값이 경합모델들보다 더 양호하므로 본 연구는 이론모형을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3) 다집단 동일성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성별에 따라 집단별 동질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다중집단동시분석(Multiple Group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모형의 교차타당성(cross-validation)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표본에서 동일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김계수, 2006).

여기서 모형 A는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에 어떤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을 의미하고, 모형 B는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이며, 모형 C는 모형 B의 내용을 포함하고 공분산까지 모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651명의 자료를 남학생 324명(49.8%), 여학생 327명(50.2%)의 남녀집단으로 나누어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다집단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 모형 | 모수 | χ^2 | df | p | AGFI | TLI | CFI | RMSEA (90%신뢰구간) | AIC |
|-------------|--------|--------------------------------|-----|------|--------------------|------|------------------|---------------------|---------|
| 모형 A | 160 | 676.945 | 346 | .000 | .914 | .948 | .961 | .038 (.034-.043) | 996.945 |
| 모형 B | 147 | 698.384 | 359 | .000 | .911 | .949 | .960 | .038 (.034-.042) | 992.384 |
| 모형 C | 104 | 747.439 | 402 | .000 | .905 | .954 | .960 | .036 (.032-.040) | 955.439 |
| χ^2 차이 | 모형 A:B | $\chi^2_B - \chi^2_A = 21.439$ | | | $df_B - df_A = 13$ | | $p = .065 > .05$ | | |
| | 모형 A:C | $\chi^2_C - \chi^2_A = 70.494$ | | | $df_C - df_A = 56$ | | $p = .092 > .05$ | | |
| | 모형 B:C | $\chi^2_C - \chi^2_B = 49.055$ | | | $df_C - df_B = 43$ | | $p = .243 > .05$ | | |

A: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B: 모형의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C: 모형의 경로계수와 공분산이 모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표 12>를 살펴보면, 모형 A, 모형 B, 모형 C의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근사값을 나타내고 있고,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먼저 χ^2 차이검정을 보면, 모형 A와 모형 B와의 유의확률(p)은 .065, 모형 C와의 유의확률(p)은 .092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5이상이므로 모형 A와의 사이에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 모형과 여학생 모형이 통계적으로 같은 모형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χ^2 값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홍세희, 2000)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AGFI, TLI, CFI를 함께 살펴보면, 모두 모형들간에 근사값을 나타냈고, RMSEA도 90%의 신뢰구간에서 안정된 값을 보였다. 이처럼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고 유의확률 .05이상의 복수모형인 경우, 모형의 모수가

적은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AIC(아카이케정보량규준)값이 최소인 가장 간단한 모형 C를 타당한 모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측정모형이 남녀학생 집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모형이며, 측정모형의 자료가 서로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증은 남녀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

4)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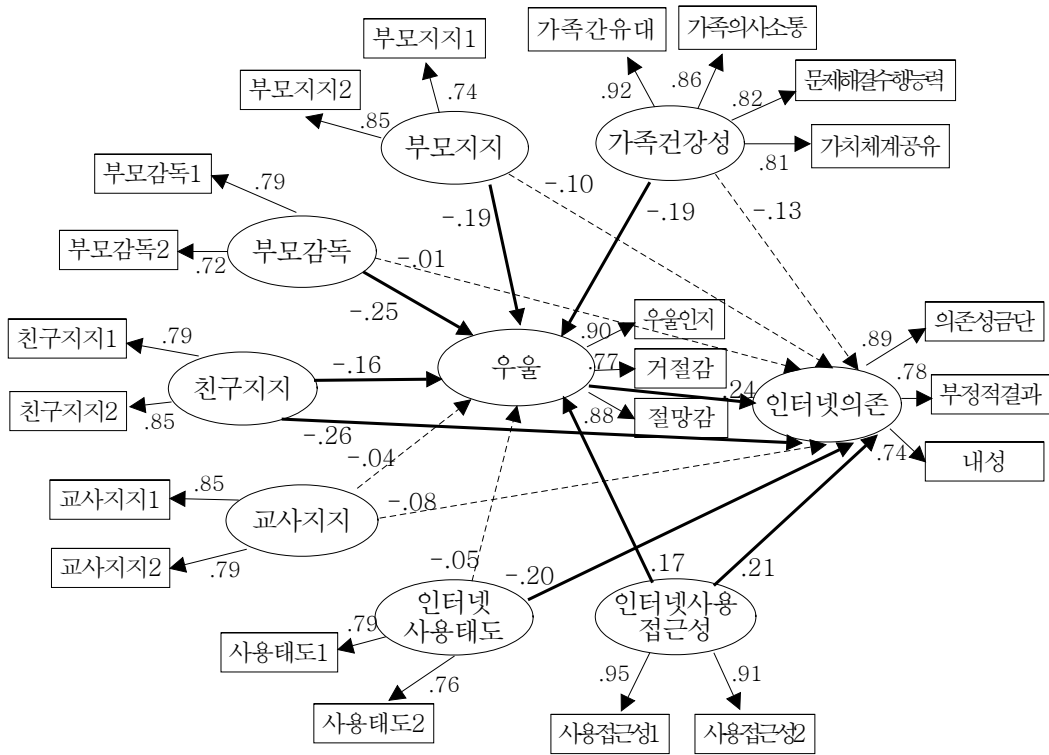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가족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통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결과는 <표 13>과 <그림 5>와 같다.

<표 13>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N=651)

| 경로 | | B | β | SE | C.R. | p |
|----------|-----------|-------|---------|------|--------|-----|
| 가족건강성 | --> 우울 | -.169 | -.189 | .071 | -2.471 | ** |
| 부모지지 | --> 우울 | -.145 | -.191 | .059 | -2.456 | ** |
| 부모감독 | --> 우울 | -.282 | -.247 | .090 | -3.112 | ** |
| 친구지지 | --> 우울 | -.148 | -.159 | .048 | -3.059 | ** |
| 교사지지 | --> 우울 | -.028 | -.038 | .037 | -.764 | - |
| 인터넷사용태도 | --> 우울 | -.040 | -.051 | .045 | -.875 | - |
| 인터넷사용접근성 | --> 우울 | .122 | .165 | .031 | 3.952 | *** |
| 가족건강성 | --> 인터넷의존 | -.118 | -.125 | .073 | -1.631 | - |
| 부모지지 | --> 인터넷의존 | -.079 | -.098 | .060 | -1.323 | - |
| 부모감독 | --> 인터넷의존 | -.010 | -.008 | .092 | -.108 | - |
| 친구지지 | --> 인터넷의존 | -.254 | -.256 | .051 | -4.959 | *** |
| 교사지지 | --> 인터넷의존 | -.064 | -.080 | .038 | -1.688 | - |
| 인터넷사용태도 | --> 인터넷의존 | -.168 | -.201 | .047 | -3.585 | *** |
| 인터넷사용접근성 | --> 인터넷의존 | .167 | .213 | .032 | 5.158 | *** |
| 우울 | --> 인터넷의존 | .256 | .240 | .047 | 5.417 | *** |

* p<.05, ** p<.01, *** p<.001



<그림 5>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먼저,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과 부모지지, 부모감독 변인 모두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beta = -.189$, $p < .01$), 부모지지($\beta = -.191$, $p < .01$), 부모감독($\beta = -.247$, $p < .01$) 모두 우울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환경요인에서는 친구지지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beta = -.038$, $p > .001$)는 우울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친구지지($\beta = -.159, p < .01$)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인터넷사용환경요인에서는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태도($\beta = -.051, p > .001$)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인터넷사용접근성($\beta = .165, p < .001$)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 우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환경요인은 인터넷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모두 인터넷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건강성($\beta = -.125, p > .001$), 부모지지($\beta = -.098, p > .001$), 부모감독($\beta = -.008,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학교환경요인에서는 친구지지가 인터넷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친구지지($\beta = -.256, p < .001$)는 인터넷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지지($\beta = -.080, p > .001$)는 인터넷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인터넷사용환경요인에서는 인터넷사용태도와 인터넷사용접근성 변인 모두가 인터넷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인터넷사용태도($\beta = -.201, p < .001$)는 인터넷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사용접근성($\beta = .213, p < .001$)은 인터넷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의 심리적요인인 우울($\beta = .240, p < .001$)은 인터넷의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이었고,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 우울로 나타났다.

4. 연구모형의 총효과 분해

가족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그리고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며,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연구모형을 통해 밝혀진 이론변인들 간의 효과를 분해하는 것은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주소영, 이양희, 2008),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Bootstrap 검증⁷⁾을 실시하였다(김계수, 2007).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족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고,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7)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은 반복측정하여 분포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므로 소위 ML방법과 결과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표 14> 연구모형의 총효과 분해

| 경로 | 직접효과 | | 간접효과 | | 총효과 | |
|-----------------------|-------|---------|-------|---------|-------|---------|
| | B | β | B | β | B | β |
| 가족건강성 → 우울 → 인터넷의존 | -.118 | -.125 | -.043 | -.045* | -.161 | -.171* |
| 부모지지 → 우울 → 인터넷의존 | -.079 | -.098 | -.037 | -.046* | -.116 | -.144 |
| 부모감독 → 우울 → 인터넷의존 | -.010 | -.008 | -.072 | -.060* | -.082 | -.068 |
| 친구지지 → 우울 → 인터넷의존 | -.254 | -.256** | -.038 | -.038** | -.292 | -.294** |
| 교사지지 → 우울 → 인터넷의존 | -.064 | -.080 | -.007 | -.009 | -.071 | -.089 |
| 인터넷사용태도 → 우울 → 인터넷의존 | -.168 | -.201** | -.010 | -.012 | -.178 | -.213* |
| 인터넷사용접근성 → 우울 → 인터넷의존 | .167 | .213 | .031 | .040** | .198 | .253* |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서, 가족건강성이 우울을 매개로 한 경로($\beta = -.045$, $p < .05$)가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이 우울을 매개로 한 경로($\beta = -.046$, $p < .05$)가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감독이 우울을 매개로 한 경로($\beta = -.060$, $p < .05$)가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친구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한 경로($\beta = -.038$, $p < .01$)가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을 매개로 한 경로($\beta = .040$, $p < .01$)가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부모감독이고, 부모지지, 가족건강성, 인터넷사용접근성, 친구지지의

순이었다.

둘째,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가족건강성,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었다. 즉, 가족건강성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표준화된 경로계수 $-.171$ 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지지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표준화된 경로계수 $-.294$ 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사용태도는 인터넷의존에 표준화된 경로계수 $-.213$ 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표준화된 경로계수 $.253$ 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총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친구지지였으며, 인터넷사용접근성, 인터넷사용태도, 가족건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각각의 경로들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우울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족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beta = -.189$, $p < .01$), 부모지지($\beta = -.191$, $p < .01$), 부모감독($\beta = -.247$, $p < .01$)은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beta = -.159$, $p < .01$)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친구의 지지가 높을 때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지지($\beta = -.038,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 인터넷사용태도($\beta = -.051, p > .001$)는 우울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사용접근성($\beta = .165, p < .001$)은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인터넷사용환경이 개방적이어서 인터넷접근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우울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2.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족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beta = -.125, p > .001$), 부모지지($\beta = -.098, p > .001$), 부모감독($\beta = -.008, p > .001$)은 인터넷의존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beta = -.256, p < .001$)는 인터넷의존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친구의 지지가 높을 때 인터넷의존경향이 더 낮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지지($\beta = -.080,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 인터넷사용태도($\beta = -.201, p < .001$)는 인터넷의존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사용접근성($\beta = .213, p < .001$)은 인터넷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인터넷사용태도가 조절적일수록 인터넷의존경향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인터넷사용환경이 개방적이어서 인터넷사용접근성이 높을수록 인터넷의존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가설 3. ‘우울은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우울($\beta=.240$, $p<.001$)은 인터넷의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의존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설 4.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족환경요인에서는 가족건강성($\beta=-.045$, $p<.05$), 부모지지($\beta=-.046$, $p<.05$), 부모감독($\beta=-.060$, $p<.05$)이 우울을 매개로 한 경로가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학교환경요인인 친구지지($\beta=-.038$, $p<.01$)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교사지지($\beta=-.009$, $p>.001$)가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인 인터넷사용태도($\beta=-.012$, $p>.001$)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사용접근성($\beta=.040$, $p<.01$)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5>와 같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건강성($\beta=-.189$, $p<.01$), 부모지지($\beta=-.191$, $p<.01$), 부모감독($\beta=-.247$, $p<.01$), 친구지지($\beta=-.159$, $p<.01$), 인터넷사용접근성($\beta=.165$, $p<.001$)으로 나타나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환

경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친구지지($\beta=-.256$, $p<.001$), 인터넷사용태도($\beta=-.201$, $p<.001$), 인터넷사용접근성($\beta=.213$, $p<.001$)으로 나타나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족환경요인은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은 모두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울($\beta=.240$, $p<.001$) 역시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가족건강성($\beta=-.045$, $p<.05$), 부모지지($\beta=-.046$, $p<.05$), 부모감독($\beta=-.060$, $p<.05$), 친구지지($\beta=-.038$, $p<.01$), 인터넷사용접근성($\beta=.040$, $p<.01$)이었다. 하지만 교사지지($\beta=-.009$, $p>.001$)와 인터넷사용태도($\beta=-.012$, $p>.001$)는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설 4는 부분지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 가설 | 내 용 | 결과 | 지지된 변인 |
|----|--|-------|-----------------------------------|
| 1. |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우울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 부분 지지 |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 |
| 2. |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 의존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 부분 지지 |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 |
| 3. | 우울은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지지 | 우울 |
| 4. |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부분 지지 |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 |

VI.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였고,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으로 가는 경로에 대한 과정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외생변수들이 우울 및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우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외생변수들과 인터넷의존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청소년 인터넷의존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중 어떠한 요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1) 외생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로 가족환경요인으로는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을, 학교환경요인으로는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인터넷사용환경요인으로는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을 설정하였고, 이 7개의 외생변수 중에서 5개의 변수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의 직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환경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첫째, 가족건강성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건강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수준이 더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상이 가정의 여러 가지 구조와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우울이 낮게 나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안인영,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와도 관계가 있다. 이처럼 가족은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사회환경으로, 인간의 성장발달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이옥석, 안정자, 1996), 가족갈등이 심화되면 위축되고 우울수준이 높아지게 된다(김영희, 안상미, 2008).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청소년에 대한 학업적인 관심에 비해 가족원간의 유대나 의사소통과 같은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이 우울과 같은 청소년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지지는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할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양돈규,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지지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생애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지지가 부족할 때에는 우울이 유발되거나 청소년 비행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김소야자, 1987).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과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지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부모감독은 우울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때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및 우울 등의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고정자, 2003; 황숙영, 2007)와 일치한다. 부모감독은 아동의 발달단계 가운데 특히 청소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특징적인 양육행동 요인이다. 즉, 청소년기 자녀를 부모가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양육할 경우, 청소년 자녀는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Barnes & Farrell, 1992; Patterson, 1982). 걱정된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에게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방과 후 부모자녀간의 교류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학교환경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첫째, 친구지지는 우울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수준이 더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친구가 있었던 성인들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친구지지가 우울, 편집증과 같은 증후와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결과(Bagwell, Newcomb, Bukowski, 1998)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또래친구 간에 인기가 없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 되고 이는 우울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박은조, 2000). 따라서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에 있어 충분한 애정 및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어릴 때부터 인성 중심의 교육과 협동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

에 대하여 이들의 우울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교사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지지가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지지가 높은 청소년이 우울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본 연구대상자들은 교사지지로 인해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교사지지 수준이 다른 연구들(홍나미 외, 1998; 장해영, 2005)에 비해 낮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대상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교사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도 이것이 우울한 심리적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보다는 건강한 방법으로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지지와 우울간의 관계가 유의한 연구(신재은, 1998; 이수연, 2004; Argly, 1992; Werner & Smith, 1992)도 있고, 유의하지 않은 연구(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DuBois 외, 1994)도 있어서, 추후연구에서 청소년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후 교사지지와 우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첫째, 인터넷사용태도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사용태도가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인터넷사용태도가 조절적인 청소년이 우울수준도 낮을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본 연구대상자들은 인터넷사용태도로 인해 유의미하게 우울수준이 낮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양식은 우울과 부적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윤영신(2006)의 연구와 자기조절적 태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택호(2004)의 연구 등과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혜린(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과 우울간의 관계가 남자 청소년은 유의했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사용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사용태도가 청소년의 일반적인 통제적 태도가 아니라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조절, 통제적 태도로 제한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적인 요인인 우울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인터넷사용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우울수준이 매우 낮아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인터넷사용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갖고,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으며, 부모가 인터넷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환경을 갖는 청소년들이 우울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가 아직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므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사용접근과 관련된 지리적·인적·금전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및 인지구조의 변화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지역사회 환경, 시설 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정일출, 1997)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나치게 용돈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형제가 없어서 늘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든지 하는 등의 청소년들의 작은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것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외생변수들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 7개의 외생변수 중에서 4개의 변수가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의 직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환경요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

첫째, 가족건강성은 인터넷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은 청소년이 인터넷의존 경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본 연구대상자들은 가족건강성으로 인해 인터넷의존 경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인터넷중독 동기에 차이가 나타난 신수정, 장윤옥(2007)의 연구, 부모와의 갈등 정도와 인터넷중독이 관련이 된다고 보고한 김교현(2001)의 연구, 가족관련특성이 인터넷사용시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조미현(2006)의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기이지만 정서적 독립, 생애가치관 형성 등이 이루어지면서 또래나 사회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경진, 2003)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박선이, 2006; 임미란, 고병오, 2006)에서도 초기청소년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가족관련 변수들이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가족관련 요인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이혜진, 2001; 조영란, 2003; 조유영, 2008).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가족건강성 척도가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부 하위요인만이 인터넷의존과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방희정, 조아미(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가족의 사소통과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의사소통만이 게임중독에 대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명희(2006)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 중 가족가치체계에만 인터넷중독이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족유대경향과 가족가치체계만이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부모지지는 인터넷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의존경향이 높게 나온 선행연구(김경신, 김진희, 2003; 백승문, 2002; 황상민, 1999)들과는 다른 결과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부모지지 수준이 높을 때 인터넷의존 경향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지지가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모의 지지가 많은 청소년들이라도 인터넷의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가족은 과거에 비해 가족수도 적어지고,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만 청소년의 인터넷의존과 같은 문제행동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부모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심리, 환경적 변인들의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감독은 인터넷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감독과 인터넷의존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상이한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부모감독이나 지시행동이 많을수록 인터넷을 의존적으로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윤영민, 2001; 조준범, 2001; 정경아, 2001)도 있고, 부모의 감독이 인터넷의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권재환, 2005; 진영희, 2002)도 있다. 이처럼 부모감독과 인터넷의존간의 관계가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의성이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연구에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2) 학교환경요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

첫째, 친구지지는 인터넷의존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의존 경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가 좋지 않고 원만하지 않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미영(2006)의 연구와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한 윤미선, 조정선(2005)의 연구 등과 일치한 결과이다. 그리고 Young과 Rodgers(1998)가 259명의 병리적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모임의 참여도가 낮았으며, 더 섬세하고, 얼굴을 보면서 하는 의사소통에서 더 방어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의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즉,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래사회에서 소속감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환경에서 친구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지지는 인터넷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인터넷중독 경향이 낮아

진다는 선행연구(김희경, 2002; 김수정, 2007; 이계원, 2001; Yang & Tung, 2007)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종원 외(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태도가 인터넷 게임중독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교사지지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가 인터넷이나 게임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적고,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된다.

(3) 인터넷사용환경요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

첫째, 인터넷사용태도는 인터넷의존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인터넷사용에 대하여 조절적인 태도를 나타낼수록 인터넷의존 경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목적 등과 관련하여 조절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 경향이 낮아짐을 보고한 선행연구들(남연옥, 이상준, 2005; 한정선, 김세영, 2006; Cao & Su,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사용에 있어 조절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가 인터넷의존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인터넷사용을 위해 조절적인 태도를 가질 것과 간접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인터넷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인터넷의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사용접근성이 높을수록 인터넷의존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PC방의 가용성, 컴퓨터 사용장소에 대한 접

근정도가 인터넷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류진아, 2003; 박성길, 김창대, 2003; 이형초, 안창일,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인터넷의존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서울의 경우 컴퓨터 보유율이 88%에 달하고,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가 세계 4위(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로 인터넷을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의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PC방 영업시간과 대상에 따른 차별적인 운영 방안 및 인터넷의 빈번한 접촉의 위험성을 가족 및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우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

우울은 인터넷의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의존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사용량의 증가와 우울수준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Kraut 외, 1998)와 우울수준이 인터넷중독에 간접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이혜린, 2007) 등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한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익명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터넷에 쉽게 몰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Young, 1998). 아직까지 우울성향과 인터넷의존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의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울은 심리적 질환이지만 이것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정서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우울질환과 같은 정서장애를 초래하기가 쉽다(강춘식, 2008).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환경적인 면 이외에 우울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인터넷의존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우울의 매개효과와 총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경로가 확인되었다. 즉,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인터넷의존간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교사지지와 인터넷사용태도를 제외한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이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족건강성이 낮고, 부모지지 및 부모감독 수준이 낮으며, 친구지지 정도가 낮고,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이 우울수준이 높게 되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가족환경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기 어렵거나 친구관계가 좋지 않고, 인터넷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부터 우울수준을 조사해보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과 달리 반항, 가출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보다는 청소년 우울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매개변수인 우울을 통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변수는 가족건강성,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었다. 가족건강성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0.171 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지지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온 유일한 변수로서, 친구지지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0.294 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총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변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요즘처럼 청소년들간의 심각한 폭력이나 비행이 나타나는 시기에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사용태도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터넷의존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왔고, 인터넷의존에 -0.213 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태도는 친구지지 다음으로 총효과의 크기가 큰 변수로 청소년의 인터넷사용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0.253 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과의 직접효과와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 우울이 있었다. 한편, 연구모형 분석을 통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의존에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이 인터넷의

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대부분의 환경요인들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울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환경요인 모두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가족환경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환경과 인터넷사용환경 요인에서도 부분적으로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청소년의 우울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인터넷의존과 같은 청소년문제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터넷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할 때에는 인터넷의존이라는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우울수준을 알아보고, 청소년 우울의 특징을 반영한 심리치료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구조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검증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이 되는 과정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 및 의존실태를 파악하였고,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청소년의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간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유의표집방법에 의해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특성에 대하여 일반적 배경, 주요변인별(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교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651명으로 성별 비율이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가족원은 4인 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생순위는 둘째 이상이 반정도를 차지했다. 연구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방과 후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방과 후 시간에 집에 있는 가족원을 조사한 결과 아무도 없거나 어른이 부재한 경우가 60%를 넘었다. 또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는 사람은 친구가 부모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평소 자주 대화하는 가족수는 1~2명이, 친구수는 5명 이하가, 선생님수는 1~2명이 가장 많았지만 의논하는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약 36%나 되었다. 학업성적은 대부분이 중위권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부모님 학

력은 고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님직업은 아버지가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은 중류층이 약 60%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사용 및 의존실태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인터넷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하고, 하루평균 1~3시간 미만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1~2시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친구들에 비해 인터넷을 적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심심하거나 재미를 위한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온라인게임을 가장 많이 하며, 인터넷 외의 여가활동은 TV나 비디오 시청이 많았다. 또한 부모님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과반수 이상이 부모와 인터넷사용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의존 비율은 일반사용자군이 65.7%, 잠재적 위험자군이 30.4%, 고위험자군이 3.8%로 나타났다.

넷째, 주요변인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건강성(3.15)은 보통수준이었고, 부모지지(3.78), 부모감독(3.67), 친구지지(3.69)는 비교적 높은 편이였으며, 교사지지(2.98)는 다른 지지변인에 비해 낮았다. 또한 인터넷사용태도(2.64), 인터넷사용접근성(2.82)도 보통수준보다 낮아서 인터넷사용에 있어서 조절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편이고, 인터넷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울(.81)은 매우 낮은 편이었고, 인터넷의존(2.21)도 비교적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존을 예측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고, 이론모형과 경합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이론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집단 동일성 검증을 통해 본 연구모형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 우울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 우울이 인터넷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친구지지와 인터넷사용태도는 인터넷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우울은 인터넷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인터넷의존간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지지와 인터넷사용태도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매개변수인 우울을 통해 인터넷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변수는 가족건강성, 친구지지, 인터넷사용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었으며, 총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친구지지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요인이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의존 문제에 있어서 우울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인터넷의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환경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가족환경요인 모두가 우울을 통해 인터넷의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가족들은 우울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우울은 사춘기의 특징과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가족들은 우울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족들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소개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차후에 인터넷의존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의존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이고, 빠른 대처가 중요하므로 가족들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심리적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건전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친구지지는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들과 지지적이고,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청소년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인터넷의존의 위험도 적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은 심리적인 욕구를 사이버공간을 통해 해소하려 할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는 자발적이고 평등하다는 점에서 다른 관계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는 산업화 사회에 비해 사람들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돈독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또래상담 활동 등을 활성화시킨다면 청소년들의 우울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또래상담자들을 통해 인터넷의존의 위험성을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올바른 인터넷 사용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어린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사용태도에 있어 조절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시간관리 프로그램이나 기타 부가서비스와 같은 물리적인 통제를 포함하여 인터넷사용에 대한 조절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부모와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게임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게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이형초 외, 2002). 그러므로 인터넷사용방법을 배우기 전에 인터넷의 기능과 위험성을 교육시키고, 조절적인 인터넷사용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외적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넷사용에 대한 내적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인터넷의존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의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노력의 요구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의존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왔지만 의존문제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접근이 중요해졌다. 지역사회 내에 자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의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및 일반상담센터 등간의 협조와 전문인력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의존질환은 스스로 의존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인터넷의존은 술이나 도박과 같이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므로 주변환경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인터넷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마련과 인터넷의존의 위험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C방 접속시간 제한, 인터넷의존에 대한 홍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존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 상담현장을 찾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기가능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인터넷의존의 치료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공존질환의 위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가족·학교·인터넷사용 환경이 인터넷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는 우울이라는 질환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사용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존질환은 치료 후에 가족과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발하기가 쉬우므로 가족치료적인 접근과 함께 다른 의존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의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심리적 요인이나 가정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인터넷의존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것과는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의존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의존에 있어서 가족·학교환경 외에 인터넷사용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터넷사용환경과 관련되는 인터넷사용태도 및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사용에 있어서 심리적인 통제감과 인터넷의존과의 관련성을 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조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태도를 척도화시켜서 살펴보았고, 인터넷사용접근성과 관련해서도 실태조사가 아니라 척도를 개발하여 인터넷의존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터넷사용환경에 대한 척도들은 앞으로의 후속연구와 인터넷사용환경 척도 개발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인터넷의존의 예방 및 치료적인 접근을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가족환경, 학교환경, 인터넷사용환경으로 세분화시켜 환경요인과 인터넷의존간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환경 중 친구지지가 인터넷의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우울이 중요한 심리적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친구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인터넷의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인 우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실제적인 대책을 통하여, 본 연구가 청소년 인터넷의존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몇가지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도권 소재 일부지역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국한하여 표집을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학교 내에서 교사를 통해 청소년 관련 조사를 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자료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의존 경로에 대하여 양적인 방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환경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내면세계를 면밀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면담과정을 통해 인터넷의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개인 특유의 질적인 정보를 살펴보고, 인터넷의존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심도깊게 다루어볼 수 있는 질적 연구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사용태도 및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지만 인터넷사용과 관련한 제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인터넷사용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인터넷의존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사용환경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인터넷의존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심리적인 요인과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 인터넷의존 치료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추적연구가 요구된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시점에서 인터넷의존 문제를 다루었지만 장기간의 추후 평가 기간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간의 영향력 변화와 인터넷의존에 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의존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 탈의존과정에 대한 연구가 비중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인터넷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인터넷에 관련된 연구들이 건강하지 못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의존문제로 한정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여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만철, 오익수(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진단 척도 개발(1). *교육심리연구*, 15(4), 5-21.
- 강지영(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족내외의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춘식(2008). 중학생의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음란물 중독간의 관련성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옥(2006).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인터넷중독 간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권윤희(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측모형 구축.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재환(2005). 심리적·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중독간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혜(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24(2), 267-280.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문가포럼 자료집.
- 김경신, 김진희(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5-25.
- 김계수(2006).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 김교현(2001).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03-514.

- 김동욱(2001). 인터넷 이용충족, 플로우 및 개인적 성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영(2003). 중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이 아동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민병배(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소야자(1987).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
- 김수렬(2006).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7).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터넷중독 관련변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순(2004). 청소년의 사이버문화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수용태도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정영숙(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 경향. 대한가정학회지, 43(10), 103-114.
- 김영희, 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0.
- 김유정(2002).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개발 및 심리사회적 취약성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2005).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모형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애(2006).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2002).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래(2003). 청소년의 소외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원, 조옥귀(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2), 477-498.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희(2001).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김경신(2006).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모형분석. 청소년학연구, 13(1), 235-268.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보통신 일반정책연구, 02-GP-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태련(1995). 청소년기의 특성과 발달과업. 서울: 배영사.
- 김택호(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중독의 현황과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김희경(2002). 인터넷중독 수준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학교적응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 이상준(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195-222.
- 남영옥, 이상준(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

- 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9(3), 185-212.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호(2001). 게임중독의 현황과 대처방안. 게임종합지원센터.
- 류진아(2004).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2(1), 65-80.
- 마홍철(2001).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2004). 청소년기 자율성 욕구와 부모허용간 불일치가 우울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성원, 김성식(2004). 아동을 위한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1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61-77.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0(3), 105-125.
- 박미자(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이(2006).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사용에 따른 자아상태와 가족건강성.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길, 김창대(2003).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요소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1(1), 84-95.
- 박성수(1994).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승민, 김창대, 천명대(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13(2), 3-14.
- 박은조(2000).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자양(2005). 청소년의 역기능적 심리특성, 인터넷중독 및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모형 검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희정·조아미(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1), 1-22.
- 백승문(2002). 사이버공간 중독집단 유형과 관련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환경.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정민(2007).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몰입 및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문영(2005). 중·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 관련 변인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숙영(1993). 가정의 환경적인 과정변인과 아동의 학업성적의 관계: 성취압력과 공부독촉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손경애(2005).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연구, 41(2), 523-548.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신수정·장운옥(2007).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31-46.
- 신재은(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인영(200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우울과의
상관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진희(2000). 여고생의 우울성향과 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혜원(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및 부모
감독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 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55-74.
- 양돈규, 임영식(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오귀화(2003).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우울성향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현화(200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미현(1995). 아동 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제16차 한국아동학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선, 조정선(2005). 중학생의 인터넷중독요인으로서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방식. 교육방법연구, 17(1), 57-80.
- 윤영미, 박효미(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구. 아동간호학회지, 12(1), 34-43.
- 윤영민(2001).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행동. 청소년학연구, 8(2), 199-228.
- 윤영신(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관련성: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진(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덕심(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우울 및 자기정체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권정혜(2001). 인터넷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67-71.
- 이수연(2004).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9)1, 15-25.
-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

- 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숙진(2007).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목(2007).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성균관대학교 BK21 문화역량사업단 강의자료집.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2000).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 건강연구소.
- 이옥석, 안정자(1996). 고등학교 남학생의 가족 환경지각과 정신건강. *전북대 논문집*, 41, 215-227.
- 이정미(2005). 미시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2006).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요인과 우울간 관련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최영선(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35-346.
- 이지항(2005). 인터넷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학식, 임지훈(2008).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AMOS 7.0. 법문사.
- 이형초, 안창일(2002). 인터넷게임 중독의 진단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211-239.
- 이혜경(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린(200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2001).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환경요인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란, 고병오(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중독 실태와 중독 요인 연구. 정보교육학회, 10(1), 801-811.
- 임수경(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서연(2005). 고등학생의 또래 애착과 자기고양적 편향 및 학교생활만족도와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옥, 장서린(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정도에 따른 인적자원의 차이. 중독교육연구, 53(2), 531-554.
- 장혜영(2005).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명희(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자, 서문영(2006). 중·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과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13-25.
- 전효정(2006).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애착유형과 심리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13(3), 137-159.
- 전필선(2009).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2001). 게임중독 청소년의 특성분석: 개입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숙(2004). 기질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출(1997). 과밀 및 소음환경이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현(2006). 중고등학생과 비교한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정보교육학회, 10(1), 741-750.
- 조영란(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측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란, 이화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모형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3), 541-551.
- 조유영(2008).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 송아영, 이순호(2007).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와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73-103.
- 주소영, 이양희(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9(3), 127-156.
- 진영희(2002). 부모 자녀 애착 및 부모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태도, 자기통제력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 최나야·한유진(2006).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 게임에 대한 기대가 아동,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209-219.

-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7-175.
- 최윤정, 이시연(2006). 빈곤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0, 89-113.
- 한국인터넷진흥원(2007). 2007년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2009).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K-척도).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a). 인터넷중독 정책동향 및 법제도 연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b). 인터넷중독의 특성 분석 연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c). 청소년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고도화 연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9). 2008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한미영(2006).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선·김세영(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161-188.
- 홍나미, 정영순(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449-473.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2006).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성균관대학교 BK21 문화역량사업단 강의 자료집.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황상민(1999). 사이버 공간의 경험과 청소년 발달: 자기 창조를 통한 가상 공동체의 형성.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수정(2000).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숙영(2007).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ex, S. H., & Jefferey P. (2001). Internet addiction: College Student Case Study Using Best Practices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 312-327.
- Anderson, K. J. (1999).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Unpublished manuscript, web address: <http://www.rpi.edu/~anderk4/research.html>
- Anderson, J. C., & Gerbing, A. D.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manat, E., & Bullter, C. (1984). Oppressive behaviors in the families of depressed children. *Family Therapy*, 11, 65-77.
- Argyle, M. (1992). Benefits produced by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In J. O. F. Veiel & U. Baumann (Eds.),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pp. 13-32). New York: Hemisphere.
- Aseltine, R. H., Gore, S., & Colten, M. E. (1994). Depression and the social developmental contex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52-263.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ber, B. K., Olsem,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arnes, G. M., &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63-776.
- Barrera, M., & Garrieon Jones, C. (1992). Family and peer social support as specific correlates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e Psychology*, 20(1), 1-16.
- Berkovitz, I. H. (1997). Junior high/middle school life. In J. D. Noshpitz(Ed.),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3, 233-242). New York: John Wiley & Sons.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 80, 879-882.
- Cao, F., & Su, F. (2006).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3), 275-281.
- Cao, F., Su, L., Liu, T., Gao, X.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 and Internet Addiction in a Sample of Chinese Adolescents. *European Psychiatry*, 22(7), 466-471.
- Carnes, P. J. (1989). Sexually addicted families: Clinical use of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the Family*, 4, 113-140.
- Cheng, T. A. (1989) Symptomatology of minor psychiatric morbidity: A

- crosscultural comparison. *Psychological Medicine*, 19, 697-708.
- Cohn, J. F., & Campbell, S. B. (1992).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infant affect regulation. In D. Cicchetti & S. Toth (Eds), *A developmental approach to affective disorder*. New York: Rochester University Press.
- Colomba, M. V., Santiago, E. S., & Rossello, J. (1999).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in Puerto Rican adolescents: An exploratory study.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5(1), 65-75.
- Davies, P. T., Dumenci, L., & Windler, M. (1999). The Interplay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Distres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38-254.
- DuBois, R. R., Felner, R. D., Meare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and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 511-522.
- Dubow, E. F., & Ulman, D. G. (1989).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The survey of adolescent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52-64.
- Emsile, G. J., & Mayers, T. L.(1999). Depression in child and adolescent: A guide to diagnosis and treatment. *CNS Drugs*, 11(3), 181-189.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Routledge.

- Forehand, R., Biggar, H., and Kotchick, B. A. (1998). Cumulative Risk Across Family Stressors: Short-and Long-Term Effects for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6(2), 119-128.
- Garrison, C. W., Jackson, K. L., Marsteller, F., McKeown, R., & Addy, C.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4), 581-585.
- Greenfield, D. N. (1999, August). The nature of internet addiction: Psychological factors in compulsive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7th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 Griffiths, M. D. (1991). Amusement machine play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video games and fruit machines *Journal of Adolescence*, 14, 53-73.
- Griffiths, M. D. (1998). Internet addiction: Does it really exist? In J. Gackenbach(Ed.). *Psychology and the Internet*(pp.61-75). New York: Academic Press.
- Griffiths, M. D., & Hunt, N. (1998).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 82(2), 475-480.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list.
[http://www,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http://www.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 Gunn. D. A. (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Hettfordshire, UK. World Wide Web. URL :
[//147.197.152.160/netquest/All-VER6.html](http://147.197.152.160/netquest/All-VER6.html).

- Harris, T., Brown, G. W. & Bifulco, A. (1986). Loss of parent in childhood and adult psychiatric disorder: the role of lack of adequate parental care. *Psychological Medicine*, 16, 641-659.
- Hirsch, B. J., & DuBois, D. L. (1992). The relation of peer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during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A two-year longitudi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3), 333-347.
- Hoffman, D. L., & Novak, T. P. (1996).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 mediated environment: Conceptual foundation. *Journal of Marketing*, 60(7), 50-68.
- Hoffmann, J. P., & Su, S. S. (1998).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depression: conditional and gender differentiated effects. *Substance Use and Misuse*, 33(11), 2219-2262.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 (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0, 5-12.
- Kandel, D. B. & Davis, M. (1986). Adult sequelae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rch Gen Psychiatry*, 43, 252-262.
- Kaplan, G. A., & Camacho, T. (1983). Perceived health and mortality: A nine-year follow-up of the human population laboratory cohort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7, 292-304.
- Knecht, T. (1995). Joy riding: multiple criminal car in an intoxicated state in relation to dyssocial personality with addictive tendencies. *Archiv fur Kriminologie*, 196(1-2), 1-5.

- Kraut, R. & Patterson, M.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Lee, S. (1993). Family structure effects on Student Outcomes. In B. Schneider and J. S. Coleman (Eds.),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pp. 43-75). Boulder: Westview Press.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E.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Logue. (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McCarthy, A. R., & Cavanaugh, D. (1998). Understanding depressive illness in adolescents: What schools can do.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82(601), 33-45.
- McGlinchey, J. B.(2003). Internet usage of college students and relationship to psychopathology and addiction symptomatologi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Niemz, K. Griffiths, M. Banyard, P. (2005). Prevalenc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ng University Students and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and Disinhibi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Dec, 8(6), 562-570.
- Olsson, G. I., & von Knorring, A. L. (1999). Adolescent depression: Prevalence in Swedish high-school stuent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9(5), 324-331.
- O'Reilly, M. (1996). Internet addiction: A new disorder enters the medical lexico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54, 1882-1883.

- Orleans, M., & Walters, G. T. (1996). Human-computer enmeshment: Identity diffusion through master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4, 144-156.
- Patten, C. A., Gillin, J. C., Farkas, A. J., Gilpin, E. A., Berry, C. C., & Pierce, J. P. (1997). Depressive symptoms in California adolescents: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4), 271-278.
- Patterson, C. J., Mischel, W. (1975). Plans to resist dist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69-378.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Self-regulatory perseveration and the depressive self-focusing style: A self-awareness theory of reactive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201, 122-13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95-401.
- Rae-Grant, N., Thomas, B. H., Offord, D. R., & Boyle, M. H. (1989). Risk, protective factors, and the prevalence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2), 262-268.
- Raskin, A., Boothe, H. M., Reating, N. H., Schuterbrandt, J. G., Odle, D. (1971). Factor analysis of normal and depressed patients' memories of parent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29, 871-879.
- Seligman, M. E. P., & Peterson, C. (1986). A learned helplessness

- perspective on childhood depression: Theory and research. In M. Rutter, C. E. Izard, & P. B.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223-249.
- Scheer, S. D., & Unger, D. G. (1998). Russian adolescents in the era of emergent democracy: The role of family environment in substance use and depression. *Family Relation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7(3), 297-303.
- Shotton, M. A. (1991). The costs and benefits of computer/internet addiction.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10, 219-230.
- Suler, J. (2000). Internet addiction: in a nutshell.
<http://www.rider.edu/users/suler.psy cyber/healthyinternet.html>.
- Teyber, E. (1992).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 guide for clinical training.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Van Wel, F. (2000). The Parental Bond and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07-318.
- Weitzman, G. D. (2000). Family and Individual Functioning and Computer / Internet Addiction. Ph. 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Woodward, L. J. & Fergusson, D. M. (1999). Childhoo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1), 87-108.
- Yang, S. C. & Tung C. J. (2007). Comparison of internet addicts and non-addicts in Taiwanese high schoo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1), 79-96.
- Yen, J. Y., Yen, C. F., Chen, C. C., Chen, S. H.C., Ko, H. H. (2007). Family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Substance Use Experience in Taiwanese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3), 323-329.
- Yen, Y. C., Ko, H. C., Wu, J. U. W., Cheng, C. P. (2008).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of Actual and Virtual Social Support to Internet Addiction Mediated through Depression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in Taiwa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4), 485-487.
- Young, K. S. (1996b). Internet can be as addicting as alcohol, drugs and gambling. An APA news releases.
<http://www.apa.org/releases/internet>.
- Young, K. S. (1996a).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Young, K. S. (August 1997). What makes on-line usages stimulating: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NY: John Wiley & Sons.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it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
- Young, K. S., Rod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vers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 25-28.
- Zingaro, J. C. (1983). A family systems approach for the career counselor. *Personel and Guidance Journal* , 62, 24-27.

매일신문 (2009. 2. 7.). “게임하고 싶어서...” 사이버머니카드 훔쳐

ABSTRACT

Relationship of family · school · internet use environmental factor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dependence: inspecting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Kim, Sun-Woo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between the family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nfluence internet dependence, and the internet dependence, which is a newly issued social problem as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being developed. In this study, family environmental factors(family strengths, parents' supports, parents' supervision), school environmental factors(friends' supports, teachers' supports) and internet use environmental factors(internet use attitude, internet accessibility) have been selected as exogenous variables, while depression has been selected as a mediated variable, which is assumed to influence the internet dependence, to create a hypothesis model and verify it.

In order to collect data,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the 651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urveys have been done equally among both of female students and male students to represent their special character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15.0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veyed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AMOS 7.0 has been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this study, first, the realities of internet usage and dependence have been examined, second, the route of factors which influence the internet dependence conclude to the internet dependence has been defined, and lastly, whether the depression plays a role of mediation between the family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internet dependence or not has been investigated. The conclusions are as below.

The research subjects started using internet while they were in the lower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used at least 1 to 3 hours on the average every day, spare most of the internet using time to play on-line games. And the internet dependence percentage among the subjects were as follows. 65.7% for general users, 30.4% for potential hazardous group, and 3.8% for higher hazardous group.

It was found out that the family strengths, parents' supports, parents' supervision, friends' supports, internet accessibilit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by investigating direct influence of exogenous variables on depression.

Meanwhile, it was found out that the friends' supports, internet use attitude, internet accessibility, depress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dependence by investigating direct influence of exogenous variables and depression on internet dependence.

And it was found out that the depression plays a role of mediated variable to increase the internet dependence tend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parents' supports, friends' supports, internet accessibility and internet dependence. But the teachers' supports and the internet use attitude don't have any mediate effect.

Lastly, it was found out that the variables with the significant total effect were family strengths, friends' supports, internet use attitude, internet accessibility and friends' supports were most significant variable by investigating th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of exogenous variables on internet dependence.

With above study results, variabl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family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internet use environmental factors effect adolescents and depression plays a role of mediated variable.

This study suggests a model to predic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internet dependence and was able to find out the path of becoming internet addictiv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depression is an important psychological mediated variable.

Lastly, implications of this study results to internet dependence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long with the future investigation suggestions were mentioned.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가족 건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학술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각 개인의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 문항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각 문항을 잘 읽은 후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를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성신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선우

I.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가족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 | | | | |
| 2.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 | | | | |
| 3.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 | | | | |
| 4.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 | | | | |
|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한다. | | | | | |
| 6. 우리 가족은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 다른 가족원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 | | | | |
| 7.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며 애정 표현을 잘한다. | | | | | |
| 8. 우리 가족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 | | | | |
| 9. 우리 가족은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 즐긴다. | | | | | |
| 10.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 | | | | |
| 1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 | | | | |
| 12.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가족모임이나 가족회의를 한다. | | | | | |
| 1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 | | | |
| 14. 우리 가족은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모든 식구들의 의견을 듣는다. | | | | | |
| 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 | | | | |
| 16.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 | | | | |
| 17.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가 아주 쉽다. | | | | | |
| 18. 우리 가족은 생활철학(가치관, 신념,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 | | | | | |
| 19. 우리 가족만이 갖는 가족문화가 있다. | | | | | |
| 20. 우리 가족은 가족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 | | | | |
| 21.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한다. | | | | | |
| 22. 우리 가족은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원 모두가 책임을 진다. | | | | | |
| 23. 우리 가족간의 의견차이는 극복하기가 쉽다. | | | | | |
| 24.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 | | | | |
| 25. 우리 가족은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 | | | | |
| 26. 우리 가족은 위기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 | | | | |

II. 다음의 문항은 부모님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 부모님은...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 | | | | |
| 2.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주신다. | | | | | |
| 3.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신다. | | | | | |
| 4.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를 믿으신다. | | | | | |

III. 다음 문항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것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부모님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이름을 물어 보신다. | | | | | |
| 2. 부모님은 내가 집밖에 있을 때 언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신다. | | | | | |
| 3. 부모님은 내가 혼자 어디를 가든지 간섭하지 않으신다. | | | | | |
| 4. 부모님은 내가 외출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물어보신다. | | | | | |
| 5. 부모님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규칙을 정해주신다. | | | | | |
| 6.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많으시다. | | | | | |
| 7. 부모님은 내가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하신다. | | | | | |
| 8. 일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올 때에는 항상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다. | | | | | |
| 9. 외출할 때, 부모님은 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을 물어보신다. | | | | | |
| 10. 부모님은 내 친구들의 학교생활이나 가정환경을 물어보신다. | | | | | |

IV. 다음은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 | | | | |
| 2.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준다. | | | | | |
| 3. 나는 내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 | | | | |
| 4.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 | | | | |
| 5.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 | | | | | |
| 6.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 | | | | | |
| 7.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 | | | | |
| 8.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 | | | | |
| 9.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도와주신다. | | | | | |
| 10. 우리 선생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신다. | | | | | |

V. 다음 문항은 지난 한달동안의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문항씩 읽어 가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전혀 없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많이 있었다 |
|--|-----------|-----------|-----------|-----------|
| 1.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도 신경에 거슬렸다. | | | | |
| 2. 입맛이 없어서 별로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들었다. | | | | |
| 3.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어도 우울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 | | | |
| 4.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 | | | |
| 5. 기분이 우울했다. | | | | |
| 6.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 | | | |
| 7. 내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 | | | |
| 8. 두려운 기분이 들었다. | | | | |
| 9.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 | | | |
| 10.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것 같았다. | | | | |
| 11. 외로움을 느꼈다. | | | | |
| 12.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 | | | | |
| 13. 느닷없이 눈물이 나곤 했다. | | | | |
| 14. 슬픈 기분이 들었다. | | | | |
| 15.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 | | | |
| 16.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다. | | | | |

VI. 다음은 여러분의 인터넷사용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하루에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다. | | | | | |
| 2. 해야 할 일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 | | | | |
| 3. 우리집 컴퓨터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 | | | | |
| 4. 인터넷은 가급적 학습이나 과제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 | | | | |
| 5. 내가 해도 되는 게임과 해서는 안되는 게임을 정해놓고 사용한다. | | | | | |

VII. 다음은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 접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집 근처에는 PC방이 많이 있다. | | | | | |
| 2. 나는 컴퓨터를 내방에서 거의 혼자 사용한다. | | | | | |
| 3. 나는 PC방에 갈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 | | | | |
| 4. 부모님은 내가 인터넷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 | | | | |
| 5. 내 주변엔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을 하기위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다. | | | | | |

VIII. 다음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하세요.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 이다 | 그런 편이다 | 정말 그렇다 |
|---|-----------------|------------------|----------|-----------|-----------|
| 1.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된다. | | | | | |
| 2. 인터넷을 하느라 학교일을 소홀히 한다. | | | | | |
| 3.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는 것보다 인터넷을 하는 것이 더 즐겁다. | | | | | |
| 4. 인터넷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자주 사귈다. | | | | | |
| 5. 인터넷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평한다. | | | | | |
| 6. 인터넷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성적이나 학교 일에 지장을 받는다. | | | | | |
| 7.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먼저 이메일부터 확인해 본다. | | | | | |
| 8. 인터넷 때문에 학교 공부가 소홀해지고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 | | | | | |
| 9. 사람들이 내게 인터넷에서 뭘 하는지를 물어보면 방어적이 되거나 숨기게 된다. | | | | | |
| 10. 인터넷에 대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일상의 피로운 생각을 잊는다. | | | | | |
| 11. 다시 인터넷을 할 수 있을 때를 기대하게 된다. | | | | | |
| 12. 인터넷이 없다면 내 인생은 허전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 | | | | |
| 13. 인터넷을 할 때 누가 날 방해하면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 한 적이 있다. | | | | | |
| 14. 밤새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자는 때가 있다. | | | | | |
| 15. 인터넷을 안 할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거나 접속하는 것을 상상한다. | | | | | |
| 16. 인터넷을 할 때 “몇 분만 더 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한다. | | | | | |
| 17.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적이 있다. | | | | | |
| 18. 인터넷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남에게 숨기려고 한다. | | | | | |
| 19. 다른 사람과 어울려 밖에 나가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시간보내는 것을 택한다. | | | | | |
| 20.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인터넷을 하게 된다. | | | | | |

IX. 다음은 자신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은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 ① 초등학교 이전 ② 초등학교 1-3학년 ③ 초등학교 4-6학년

2.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PC방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이상

3.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이상

4.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 ①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② 적게 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많이 하는 편이다 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다

5.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요?

- ① 친구와의 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② 그냥 심심해서(할 게 없어서)
③ 재미있으니까 ④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⑤ 정보를 얻기 위해
⑥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6. 인터넷을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나요?(1가지만 기입하세요.)

- ① 정보검색 ② 학습에 도움 ③ 이메일
④ 채팅 ⑤ 동호회/게시판 활동 ⑥ 온라인게임
⑦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⑧ 기타(_____)

7.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여가활동을 하나요?

- ① TV, 비디오 시청 ② 친구만나기 ③ 운동하기
④ 잠자기 ⑤ 음악듣기 ⑥ 독서하기
⑦ 기타(_____)

8. 부모님은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 ① 두분 모두 이용 ② 아버지만 이용 ③ 어머니만 이용 ④ 두분 모두 이용 안함

9.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수준은 어느정도 입니까?

- ① 거의 사용할 줄을 모른다 ② 간단한 것만 조금 사용할 줄 안다 ③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 부모님과 인터넷 사용 때문에 자녀와 다투거나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④ 매우 자주 있다

X. 다음은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거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세, 중학교 ()학년

3. 자신의 출생순위는?

- ① 첫째 ② 둘째이상 ③ 막내
④ 외동이

4. 여러분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를 표시하여 주세요.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자매(____명)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_____)

5. 자신의 어려운 문제는 누구와 가장 많이 의논하는 편입니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혼자서 해결 ② 부모 ③ 친구 ④ 형제, 자매
⑤ 종교, 상담기관 ⑥ 친척 ⑦ 선생님 ⑧ 기타(_____)

6. 여러분이 평소 자주 대화하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명

7. 여러분이 평소 자주 대화하는 학교 선생님은 몇 명입니까? ()명

8. 여러분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명

9. 여러분은 방과 후(수업이 끝난 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 ① 집 ② 학교 ③ 학원 ④ 독서실
⑤ 친구집 ⑥ PC방, 오락실 ⑦ 기타(_____)

10. 방과 후(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가면 누가 계시나요?

- ① 아버지, 어머니 ② 할아버지, 할머니 ③ 형제, 자매
④ 아무도 없음 ⑤ 가족 외 돌봐주시는 분 ⑥ 기타(_____)

11. 자신의 지난 1년간 학업 성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12. 부모님의 학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 ____번, 어머니: ____번)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⑤ 기타

13. 부모님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맞벌이 ② 아버지만 직업이 있다 ③ 어머니만 직업이 있다
④ 기타()

14. 부모님의 직업은? (아버지: ____번, 어머니: ____번)

-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④ 공무원 ⑤ 단순노무직
⑥ 생산직 ⑦ 전업주부 ⑧ 기타(_____)

15. 우리집의 경제적 수준은?

- ① 상류층 ② 중상류층 ③ 중류층
④ 중하류층 ⑤ 하류층

- 긴 시간동안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인터넷사용태도 척도 및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 개발과정

1. 인터넷사용태도 척도 개발

1) 타당도

(1) 구성타당도

요인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1개로 나타났으며, 요인의 설명력은 55.201%로 나타났다.

<표 1> 고유값 및 설명변량

| 성분 | 초기 고유값 | | | 추출 제곱합 적재값 | | |
|----|--------|--------|---------|------------|--------|--------|
| | 전체 | 분산(%) | 누적(%) | 전체 | 분산(%) | 누적(%) |
| 1 | 2.760 | 55.201 | 55.201 | 2.760 | 55.201 | 55.201 |
| 2 | .722 | 14.432 | 69.633 | | | |
| 3 | .628 | 12.556 | 82.189 | | | |
| 4 | .467 | 9.338 | 91.527 | | | |
| 5 | .424 | 8.473 | 100.000 | | | |

(2) 예측타당도

① 인터넷사용태도와 인터넷사용접근성, 우울, 인터넷의존과의 상관관계

인터넷사용태도와 인터넷사용접근성, 우울, 인터넷의존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인터넷사용태도는 인터넷사용접근성 ($r=-.201$, $p<.001$), 인터넷의존($r=-.206$, $p<.0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터넷사용태도와 인터넷사용접근성, 우울, 인터넷의존과의 상관관계

| 변수 | 인터넷사용접근성 | 우울 | 인터넷의존 |
|---------|----------|-------|----------|
| 인터넷사용태도 | -.201*** | -.030 | -.206*** |

*** p<.001

② 인터넷사용태도가 인터넷의존과 인터넷의존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사용태도가 인터넷의존과 인터넷의존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인터넷사용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인터넷중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239, p<.001), 부정적 결과(B=-.152, p<.01)와 내성(B=-.125, p<.05)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터넷사용태도가 인터넷의존과 인터넷의존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 변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t-value |
|------------|----------|------|-------|---------|
| 인터넷중독 | -.239*** | .050 | -.038 | -4.786 |
| 의존성 및 금단증상 | .022 | .076 | .017 | .285 |
| 부정적인 결과 | -.152** | .052 | -.157 | -2.899 |
| 내성 | -.125* | .054 | -.121 | -2.312 |

* p<.05, ** p<.01, *** p<.001

2) 신뢰도

(1) 문항분석

<표 4> 인터넷사용태도 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분산

| 문항 | 평균 | 표준편차 | 분산 |
|----|------|-------|-------|
| 1 | 2.37 | 1.215 | 1.476 |
| 2 | 3.10 | 1.211 | 1.467 |
| 3 | 2.80 | 1.406 | 1.977 |
| 4 | 2.13 | 1.078 | 1.162 |
| 5 | 2.78 | 1.328 | 1.764 |

(2) 알파계수

<표 5> 인터넷사용태도 척도 신뢰도

| 구분 | 문항 삭제시 척도 평균 | 문항 삭제시 척도 분산 |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 제곱 다중 상관관계 | 문항제거시 a |
|------|-----------------|-----------------|-------------------|---------------|--------------|
| 문항 1 | 10.809 | 14.481 | .581 | .383 | .747 |
| 문항 2 | 10.072 | 14.216 | .618 | .419 | .735 |
| 문항 3 | 10.378 | 14.330 | .472 | .226 | .787 |
| 문항 4 | 11.047 | 15.257 | .583 | .356 | .750 |
| 문항 5 | 10.395 | 13.546 | .616 | .396 | .735 |

척도 전체 $a = .790$

2.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 개발

1) 타당도

(1) 구성타당도

요인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1개로 나타났으며, 요인의 설명력은 44.325%로 나타났다.

<표 6> 고유값 및 설명변량

| 성분 | 초기 고유값 | | | 추출 제곱합 적재값 | | |
|----|--------|--------|---------|------------|--------|--------|
| | 전체 | 분산(%) | 누적(%) | 전체 | 분산(%) | 누적(%) |
| 1 | 2.216 | 44.325 | 44.325 | 2.216 | 44.325 | 44.325 |
| 2 | .875 | 17.494 | 61.819 | | | |
| 3 | .722 | 14.438 | 76.257 | | | |
| 4 | .633 | 12.665 | 88.923 | | | |
| 5 | .554 | 11.077 | 100.000 | | | |

(2) 예측타당도

①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인터넷사용태도, 우울, 인터넷의존과의 상관관계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인터넷사용태도, 우울, 인터넷의존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7>과 같이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우울($r=.133$, $p<.001$), 인터넷의존($r=.299$,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사용접근성은 인터넷사용태도($r=-.201$, $p<.001$)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터넷사용접근성과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사용태도, 우울, 인터넷의존과의 상관관계

| 변수 | 인터넷사용태도 | 우울 | 인터넷의존 |
|----------|----------|---------|---------|
| 인터넷사용접근성 | -.201*** | .133*** | .299*** |

*** p<.001

②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인터넷의존과 인터넷의존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인터넷의존과 인터넷의존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인터넷사용접근성이 개방적일수록 인터넷의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343, p<.001), 부정적 결과(B=.096, p<.05)와 내성(B=.222, p<.001)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인터넷사용접근성이 인터넷의존과 인터넷의존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 변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t-value |
|------------|---------|------|-------|---------|
| 인터넷의존 | .343*** | .042 | .312 | 8.226 |
| 의존성 및 금단증상 | .014 | .063 | .012 | .216 |
| 부정적인 결과 | .096* | .044 | .115 | 2.192 |
| 내성 | .222*** | .045 | .250 | 4.929 |

* p<.05, *** p<.001

2) 신뢰도

(1) 문항분석

<표 9>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분산

| 문항 | 평균 | 표준편차 | 분산 |
|----|------|-------|-------|
| 1 | 2.24 | 1.351 | 1.825 |
| 2 | 3.14 | 1.240 | 1.538 |
| 3 | 2.97 | 1.156 | 1.336 |
| 4 | 2.45 | 1.044 | 1.090 |
| 5 | 3.15 | 1.167 | 1.362 |

(2) 알파계수

<표 10> 인터넷사용접근성 척도 신뢰도

| 구분 | 문항 삭제시 척도 평균 | 문항 삭제시 척도 분산 |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 제곱 다중 상관관계 | 문항제거시 α |
|-----------------------|-----------------|-----------------|----------------------|---------------|-------------------|
| 문항 1 | 11.708 | 10.411 | .400 | .168 | .651 |
| 문항 2 | 11.005 | 10.540 | .453 | .247 | .623 |
| 문항 3 | 11.173 | 10.816 | .470 | .250 | .617 |
| 문항 4 | 11.696 | 11.944 | .373 | .150 | .657 |
| 문항 5 | 10.989 | 10.619 | .493 | .244 | .606 |
| 척도 전체 $\alpha = .682$ | | | | | |

부록 3. 측정모형의 상관관계

(N=65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
| 1. 가족원간의 유대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 .798*** | 1 | | | | | | | | | | | | | | | | | | | | | |
| 3. 가족원간의 문제해결수행능력 | .747*** | .726*** | 1 | | | | | | | | | | | | | | | | | | | | |
| 4.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 .765*** | .733*** | .705*** | 1 | | | | | | | | | | | | | | | | | | | |
| 5. 부모지지 1 | .518*** | .451*** | .450*** | .459*** | 1 | | | | | | | | | | | | | | | | | | |
| 6. 부모지지 2 | .567*** | .511*** | .485*** | .465*** | .628*** | 1 | | | | | | | | | | | | | | | | | |
| 7. 부모감독 1 | .486*** | .480*** | .394*** | .472*** | .283*** | .458*** | 1 | | | | | | | | | | | | | | | | |
| 8. 부모감독 2 | .428*** | .370*** | .306*** | .361*** | .260*** | .364*** | .573*** | 1 | | | | | | | | | | | | | | | |
| 9. 친구지지 1 | .320*** | .257*** | .280*** | .264*** | .197*** | .217*** | .199*** | .215*** | 1 | | | | | | | | | | | | | | |
| 10. 친구지지 2 | .331*** | .298*** | .303*** | .296*** | .225*** | .226*** | .254*** | .281*** | .670*** | 1 | | | | | | | | | | | | | |
| 11. 교사지지 1 | .285*** | .290*** | .301*** | .300*** | .218*** | .142*** | .170*** | .100*** | .147*** | .163*** | 1 | | | | | | | | | | | | |
| 12. 교사지지 2 | .222*** | .256*** | .227*** | .240*** | .200*** | .168*** | .131*** | .135*** | .112*** | .146*** | .669*** | 1 | | | | | | | | | | | |
| 13. 사용태도 1 | .294*** | .297*** | .263*** | .279*** | .132*** | .202*** | .289*** | .290*** | .059*** | .120*** | .171*** | .187*** | 1 | | | | | | | | | | |
| 14. 사용태도 2 | .250*** | .310*** | .249*** | .272*** | .138*** | .131*** | .216*** | .223*** | .049*** | .164*** | .163*** | .228*** | .598*** | 1 | | | | | | | | | |
| 15. 사용접근성 1 | -.005*** | -.047*** | -.057*** | -.001*** | -.002*** | -.027*** | -.066*** | -.172*** | -.009*** | -.024*** | -.004*** | -.039*** | -.138*** | -.150*** | 1 | | | | | | | | |
| 16. 사용접근성 2 | -.049*** | -.090*** | -.079*** | -.050*** | -.039*** | -.068*** | -.121*** | -.212*** | -.014*** | -.035*** | -.033*** | -.066*** | -.179*** | -.182*** | .970*** | 1 | | | | | | | |
| 17. 우울인지 | -.202*** | -.126*** | -.163*** | -.132*** | -.132*** | -.165*** | -.021*** | -.021*** | -.152*** | -.072*** | -.081*** | -.082*** | -.049*** | -.022*** | .111*** | .126*** | 1 | | | | | | |
| 18. 거절감 | -.219*** | -.165*** | -.207*** | -.159*** | -.183*** | -.184*** | -.057*** | -.085*** | -.250*** | -.223*** | -.101*** | -.110*** | -.031*** | -.012*** | .077*** | .099*** | .695*** | 1 | | | | | |
| 19. 절망감 | -.248*** | -.133*** | -.198*** | -.184*** | -.202*** | -.186*** | -.089*** | -.110*** | .195*** | -.146*** | -.126*** | -.128*** | -.082*** | -.046*** | .102*** | .126*** | .791*** | .661*** | 1 | | | | |
| 20. 의존성 및 금단 | -.166*** | -.118*** | -.161*** | -.099*** | -.126*** | -.162*** | -.079*** | -.236*** | -.254*** | -.291*** | -.019*** | -.021*** | -.144*** | -.171*** | .266*** | .249*** | .216*** | .264*** | .293*** | 1 | | | |
| 21. 부정적인 결과 | -.214*** | -.132*** | -.185*** | -.139*** | -.139*** | -.151*** | -.103*** | -.269*** | -.197*** | -.217*** | -.091*** | -.050*** | -.170*** | -.214*** | .281*** | .269*** | .127*** | .216*** | .260*** | .670*** | 1 | | |
| 22. 내성 | -.112*** | -.081*** | -.137*** | -.091*** | -.128*** | -.103*** | -.046*** | -.183*** | -.087*** | -.126*** | -.053*** | -.057*** | -.163*** | -.176*** | .345*** | .329*** | .197*** | .214*** | .284*** | .709*** | .630*** | 1 | |

* p<.05, ** p<.01, *** p<.001